

HERE
NOW
MYSELF

HERA

서울은 고유한 가치와 다채로운 아름다움, 그리고 구성원 각자의 개성을 자유롭게 결합하고 해체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도시입니다. 헤라는 서울 뷰티를 근간으로 하는 브랜드로서, 서울의 문화적 다양성이 개인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C.CREW는 지금, 서울을 대표하는 라이징 아티스트가 모인 크루입니다. 이들은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창의성을 발휘해 서울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나 자신에게서 본질을 찾고, 정의할 수 없는 새로움을 만들어 내는 아티스트의 창조적 태도는 서울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지난 6개월 간 헤라와 C.CREW는 브랜드 철학인 HERE, NOW, MYSELF를 주제로 아트워크를 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나답게. 각각의 개성 있는 작품이 다채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아름다움의 탄생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AMIRA
BOAT
BUTTERCUP
HAHYUNG
HALFPY
JOUNG HAEKANG
KWON KEUN SOO
MIRI
MINGYES
MINRAINDALI
OLOHOYO
SILVER JO
STUDIO CHACHA
SUH SUHYUN
SUN LEE

HALFPY



Frame
@iamhalfpy

8

H(HERA). 하피는 누구인가?

하피(HALFPY). 안녕하세요, 모델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김태호(하피)입니다.



HALFPY

HALFPY

H. 내 작업이 가진 가치는?

하피. 제 작업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보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제 작업의 가치입니다.

H. 나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하피. 저는 스스로 일을 벌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바쁘지만 뿌듯한 삶을 추구합니다.

H. 서울(도시) 속 영감의 출처는?

하피. 영감보다는 자극을 더 많이 받습니다. 서울에는 맛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감이려면 주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쉼 때 불편듯 찾아 옵니다.

H. 나는 도시 속 어떤 존재인가?

하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H.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서울은?

하피. 남산타워,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거대한 트로피 같아서. Dream comes true.

H.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 방향성과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하피. 최근에는 제가 유년 시절 살다 온 미국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느꼈던 감정들과 이야기들이 여전히 기억 속에 맴도는 만큼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저에게 매우 중요한 모험 속 스테이지(stage) 중 한 곳이에요. 작업 속에 녹여낼 수 있는 재료들이 풍부하기에 꼭 찬 작업을 보여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H. 창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피. 그냥 어느 순간 영감이 떠오르고 그 기억을 잘 가지고 있다가 주로 새벽에 노트 위로 스케치를

옮겨 두는 것 같아요. 스케치를 할 때는 일부러 작게 그려요. 작게 그려야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릴 수 있거든요. 어릴 적 제 교과서가 더러웠던 이유예요. 그리고 그 작은 스케치를 일러스트화 시킨 뒤에, 디벨롭하고 훗날 캔버스에 옮기는 것 같아요.

H.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하피. 작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지만 그림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캔버스라는 네모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저라는 사람, 이야기를 표현 하고 싶어요. 그게 옷이 될 수 있고 영상이 될 수 있고 변화무쌍한 하피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H.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하피.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정점을 찍어보고 싶어요. 정점을 찍고 하산할 때 제가 올라간 길을 가는 새로운 젊은 친구들을 서포트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어요. '먼 훗날 하피처럼 되는 게 꿈이에요' 라는 말을 듣기 위해 열심히 달려볼게요.

9

JOUNG HAEKANG



Craft
@riverriverintheworld

H(HERA). 정해강은 누구인가?

정해강. 섬유를 주 소재로 시각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정해강입니다. 실과 천으로 금방 지나가는 것들을 엮고 묶어, 흠어지지 않는 마땅한 면적을 주고 싶습니다.



10

JOUNG HAEKANG

JOUNG HAEKANG

H. 내 작업이 가진 가치는?

정해강. 우리 주변을 휩 지나가는 어떤 것들, 언젠가는 매일의 즐거움이었고 또 다른 날엔 금방 눈 돌리고 싶던 모든 게 오늘 이후의 세상에선 더 빨리 휘발되는 것 같아요. 사라지지 않았으면 싶은 것, 남아야 하는 것들과 좀 더 오래 함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H. 나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정해강. 저는 가능한 많은 것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 즐거울 일엔 눈물이 쏙 빠지게 깔깔 웃고, 슬픈 일엔 소리 내어 엉엉 울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H. 서울(도시)속 영감의 출처는?

정해강. 삶의 대부분을 이 도시에서 보냈고, 저의 순간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벌어진 것들입니다. 작업을 시작하며 기억 조각을 주로 뒤져보는 편이라, 제가 머물렀던 서울의 골목골목이 힌트가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H. 나는 도시 속 어떤 존재인가?

정해강. 머리볼 위 우리 조각!

H.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서울?

정해강. 어제로부터, 오늘의, 내일에게까지

H.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 방향성과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정해강. 예전에 저는 좀 더 위대한, 불변의, 단 하나의 진리나 법칙을 위해서 모두가 어느 정도 사소한 것은 잊거나 넘어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업을 할 때도 일상적 경험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그만 것은 우습게 생각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었고요. 누가 봐도 '멋있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기쁨, 오늘의 슬픔을 감추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 의젓하고 의연한,

'멋있는' 모습이 이 세상의 모범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 소중했던 무언가를 잊으며, 또는 슬퍼서 스스로 죽으면서 제가 생각하던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좀 더 큰 것을 위해 참고 숨기고 이겨내지 않고, 부드럽게 서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세상은 사소한 순간들, 더 가까운 우리의 주변을 마주할 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속에서 기쁠 땐 눈물이 절끔 나도록 깔깔 웃고, 슬플 땐 눈치 보지 않고 엉엉 우는 것, 그 순간들을 잊지 않는 것이 진짜 '멋있는' 것 같지 않나요? 대단한 무언가를 위해/통해 참고 이겨내는 게 아닌, 일상의 무언가를 나누면서 서로 이어지고 넓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엔 일상의 사소한, 금방 지나가지만 문득 무언가 떠오르게 하는 것들과 함께 작업하려고 합니다. 바람결 노랫말, 어느 날 내 앞의 속눈썹, 매일 다르게 뜨는 구름 같은 것들을 오래 바라보고 싶습니다.

H. 창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정해강. 마주치는 것들 중 현세에 오랫동안, 마땅히 한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빈 천에 실 다발을 심어서 면적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어 붙이고 속을 채워 우뚝 설 수 있게 만들기도 해요. 재료나 색깔은 머릿속 가상 작업 통해 추려낸 후보군을 직접 만지고 짚지으며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H.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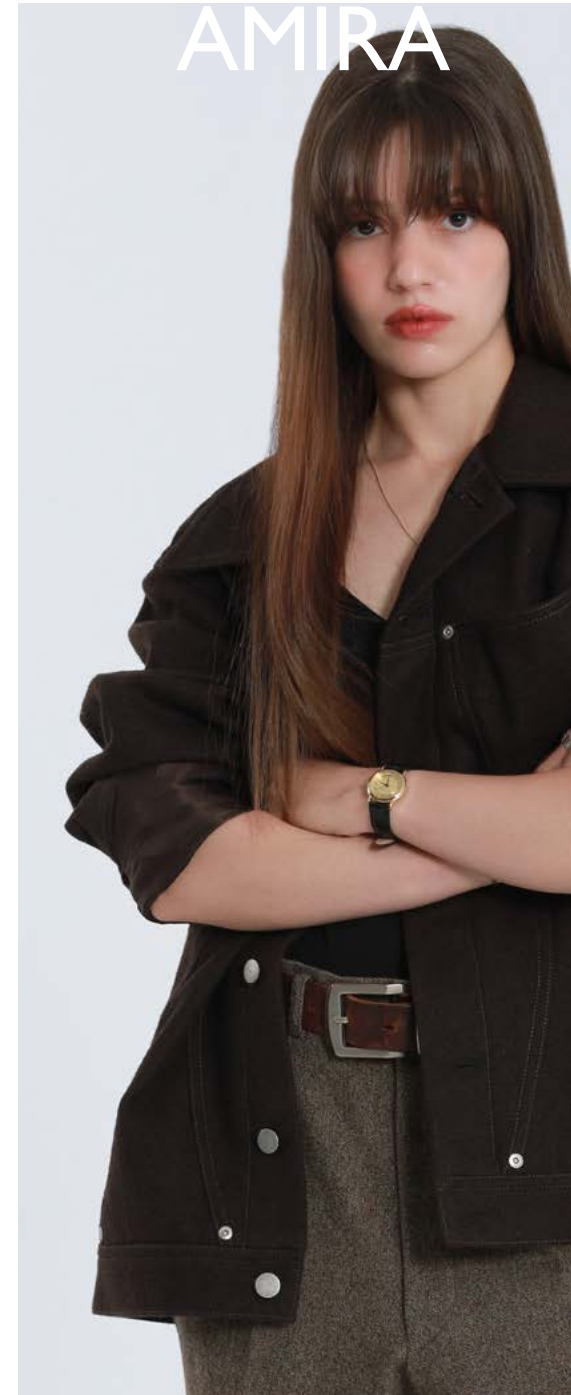
정해강. 제 작업이 꽤 유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실제 성격이 유치해서 그런 건지? '아, 유치해, 근데 나도 저런 적 있긴 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삶의 장면을, 흘려보지 않고 더 자주 흥미롭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11

H.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정해강. 많은 사람과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을 갖고 싶습니다. 대단하게 빛나는 작품을
만들기 보다 많은 사람이 제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어느 순간을 반짝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세상이 댄스 플로어라면 그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 미러볼 위 유리
조각으로 군데군데 여러 곳을 비추고 춤추며,
빛나는 세상이 오랫동안 끝나지 않게 하고 싶어요.

H(HERA). 아미라는 누구인가?
아미라(AMIRA). 금속공예를 하고 있는
아미라입니다.



H. 내 작업이 가진 가치는?

아미라. 보는 사람에 따라 장식과 기능 그 어디쯤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계 공예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기도 해요. 일상에 예술을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작가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 않을까요.

H. 나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아미라. 먼 훗날 오늘을 다시 꺼내 보았을 때 '진짜 나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지난 시간이 그대로 축적된 오래된 것들을 더 소중히 다루는 삶. 확고한 나의 취향을 잘 다듬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좋은 영감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H. 서울(도시)속 영감의 출처는?

아미라. 주로 건물의 텍스처나 형태, 혹은 일상 속의 엉뚱함 또는 불편함에서 영감을 얻는데, 서울은 많은 것들이 동시에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화려하면서도 잔잔한, 보는 그날 기분에 따라 변하는 도시예요.

H. 나는 도시 속 어떤 존재인가?

아미라. 도시 속 아티스트들은 순환하는 존재예요. 복잡하게 얽힌 도시를 자신의 뜻대로 정리하고 재해석하며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을 터주거나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요.

H.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서울?

아미라. 꼭 급속 같아요. 뜨거울 때도 있지만, 금방 식어버리고 때로는 냉정한 것 같기도 해요.

H.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 방향성과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아미라. 작업의 사이즈나 스케일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더 간결하면서도 과감하게, 작품 설치 방식에서도 거울의 본래 기능보다 장식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작업하고 있어요. 앞으로 작업의 사이즈를 더 키우거나 기술적으로도 다양한 모험을 하고 싶어요.

H. 창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아미라. 작업을 하지 않고 평범하게 보내는 일상 생활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데, 특히 불편함에서 받는 영감은 더 흥미로워요. 다수를 위해 맞춰진 디자인이다 보니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없는데, 그때 더 좋은 디자인을 고민하고 실행해요. 이 부분은 공예라서 가능한 거 같아요.

H.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아미라. 크게 깨달은 것은 하면 할수록 지금의 작업을 더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10년 동안 공예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아미라. 스타일이 뚜렷한 만큼,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하든 많은 분에게 바로 떠오르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만큼 작가의 색깔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화려함보다 뚜렷함으로 오래오래 작업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AM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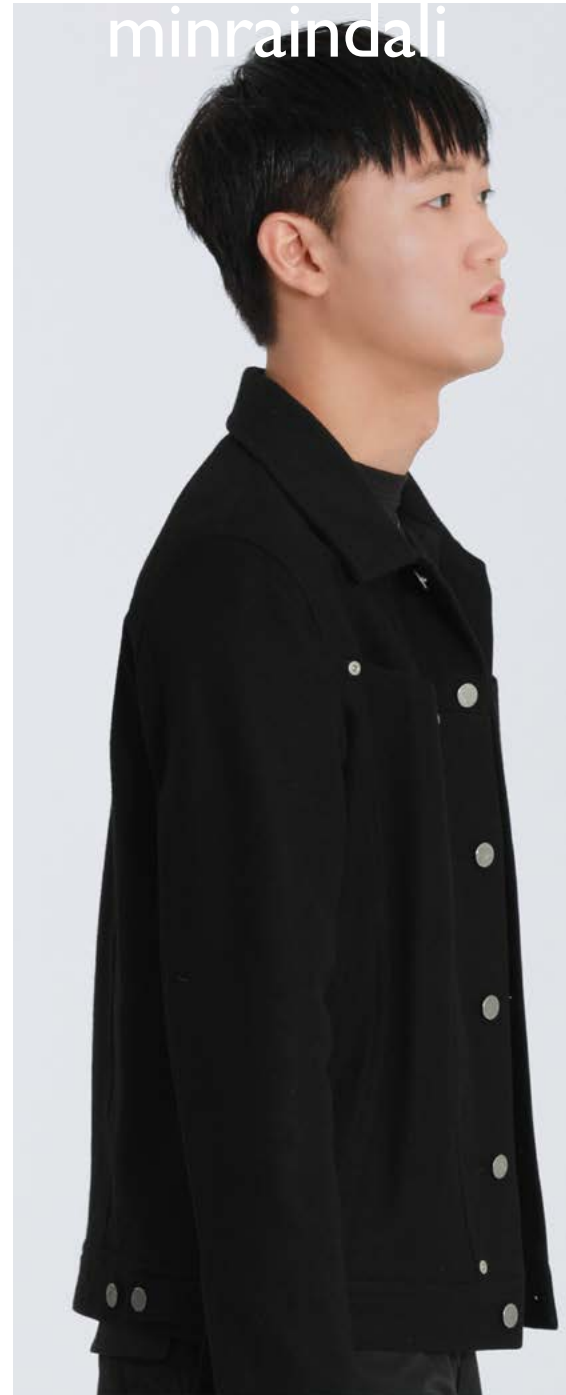
Frame
@minraindali

minraindali

H(HERA). minraindali는 누구인가?
minraindali. 콜라주 아티스트 minraindali 입니다. 사진들을 자르고 붙이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minraindali



H. 내 작업이 가진 가치는?

minraindali. 저는 제가 생각한 메시지들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작업합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쉽고 재밌게 만들어요. 그래서 작품에 공감 해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해요. 메시지의 힘은 강력하기 때문에, 메시지에 비주얼을 입힌 제 작품의 파급력은 그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H. 나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minraindali. 모든 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요즘이에요. 관심 있는 것들은 조용히 찾아보고 작품에 어떻게 최대한 녹여낼지 고민합니다.

H. 서울(도시)속 영감의 출처는?

minraindali.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영감의 출처입니다. 그들이 서울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느끼는 희로애락을 작품에 녹여냅니다.

H. 나는 도시 속 어떤 존재인가?

minraindali. 주연이자, 엑스트라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저는 엑스트라가 될 수도, 주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얽히고 얽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H.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서울?

minraindali. 멀리서 보면 같은 색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조화롭고 다채로운 색들의 공간 같아요. 지역도, 사람들도 각자의 색을 표현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색깔을 서울에 칠하고 있어요.

H.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 방향성과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minraindali. 최근 더 보이드쇼 '오디세이'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캔버스 작업에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캔버스 작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재료로 사용하는 사진 소스들의 크기 때문이었는데,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 이유는 핑계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캔버스를 이용한 작업물을 만들기로 결심했고, 다음엔 좀 더 풍부한 재료들을 이용해 볼 생각이예요. 몰감도 사용하고 청바지 같은 질감도 붙여보고 싶어요. 캔버스는 내가 스스로 구상했던 작업의 영역을 넓혀준 것 같아요. 나중엔 손 그림도 도전하려 해요. 에드워드 호퍼처럼 채도가 낮고 정적인 스타일로 콜라주 작업을 유희로도 표현하고 싶어요.

minraindali



minraindali

H. 창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minraindali. 일상 속 나의 고뇌와 고민들에서 영감을 받아요. 주로 생각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발단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응원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한 제 작품을 접하는 사람이 전율을 느끼거나 힘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 내려고 노력해요. 소재로 삼을 고민이 생기면, 8, 90년대 외국 서적에 있는 사진들을 셀렉하며 머릿속에 이미지를 스케치해요. 생각의 온도를 보고 전체적인 배경 톤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작품을 만들면서 고민에 대한 답을 알게 되는데, 보통 이 정답으로 작품 연출의 포인트를 잡아요. 예를 들어 오래된 커플의 다사다난한 시간을 투박하고 영겨있는 실로 표현하듯, 종이와 아닌 다양한 질감의 재료로 포인트를 잡습니다.

H.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minraindali. 어느 순간부터 한국 미술에서 콜라주 작품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비슷한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와 작품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감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한데, 선호된 작가를 포함한 콜라주 작가들이 많아져 제 작품도 그들을 따라 더 멋있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콜라주라는 미술 기법이 유행을 타지 않고 사람들이 꾸준하게 즐길 수 있는 분야가 되었으면 해요. 저도 한국 콜라주 미술 기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제 작품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꼭 필요한 것만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비워지고 정적인 콜라주를 하는데 많은 분이 제 작품에서 위로를 받고 제 작품을 찾을 때 정말 감사해요.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저의 색을 찾은 것 같아서 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H.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minraindali. 현대의 블랙 코미디 아트를 추구하는 뱅크시 같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제 작품은 유틸리티 있는 상상과 사진, 비비드한 컬러감이 조화로운 예쁜 작품이라는 평을 들어왔지만, 작품을 접하는 분들 대부분은 작품에 담긴 메시지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셔요.

올해 참여한 전시에서 오랜만에 작품에 대한 짧은 캡션을 적은 적이 있는데, 관람객분들이 해설을 보며 제 작품의 의미를 곱씹으시더라고요. 관객들에게 유틸리티 있으면서 강렬한 메시지 한 방을 주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나중엔 캡션을 달지 않아도 관객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거예요.

SILVER JO

Graphic Art Work
@josilvrr

H(HERA). 조은은 누구인가?

SILVER JO. 보여지는 것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사람.



SILVER JO

H. 내 작업이 가진 가치는?

SILVER JO. 매번 기록되어지고 기억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H. 나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SILVER JO. 타인을 위한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나를 잃지 않는 것. 그 일에 신념을 갖는 것.

H. 서울(도시)속 영감의 출처는?

SILVER JO. 멈춤과 움직임이 가득한 서울 여러 공간 속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호흡하며 영감을 얻어갑니다.

H. 나는 도시 속 어떤 존재인가?

SILVER JO. 자신의 호흡으로 꾸준히 무언가를 꾸려가는 존재.

H.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서울?

SILVER JO. 도태와 생존. 절망과 환희가 반복되는 공간.

H.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 방향성과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SILVER JO. 올해 일본, 몽골, 유럽 여행을 했어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수십 가지 물음과 함께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했죠. 저의 물음에 대한 그들의 대답에서 감정, 삶의 방식과 기준 같은 것들을 공유받았어요. 서로의 경험을 꺼내면서 위로와 응원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여러 사람의 대답을 통해 제가 지나왔던 혹은 지나갈 순간을 되돌아보고 정비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프로젝트를 잘 정리해서 한편의 책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아마 내년 1월에는 이 책을 만나볼 수 있을듯해요.

H. 창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SILVER JO.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초석을 다지는 특별한 과정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상을 보내면서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듣고 느끼려 해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저만의 커다란 돌이 되기도 하고, 부드러운 흙이 되기도 해요. 아니면 더 뽀뽀이 흩어져 어딘가 잔존하면서 자연스럽게 작업에 녹아드는 느낌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고 일을 하므로 그날 가는 곳이 곧 제작실이에요. 어제는 도서관에 잠깐 가서 작업을 했어요. 마침 디자인 기획이 잘 풀리지 않아서 선반에 꽂혀있는 수많은 책 중 한 권을 무작정 꺼내 들고 읽었는데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구절에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평소 좋아하는 카페에 와서 작업 중입니다. 유랑하는 프리랜서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H.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SILVER JO.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 일을 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제가 지나온 3년의 시간은 저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죠. 가장 크게 변화시킨 건 '주체성'이에요. 회사에 있을 때와는 달리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제가 움직이고 생각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것들이 정직하게 되돌아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움직이고 크게 목소리를 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재밌는 작업도 많이 하게 되고,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쌓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천천히 제 것을 쌓아가고 싶어요. 그게 어떤 형태든.

H.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SILVER JO. 조은 혹은 조실버라고 했을 때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각인되기 위해 저는 오늘도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중입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이성과 감성, 현실과 이상 속에서 최선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여러 노력을 합니다.

SILVER JO

2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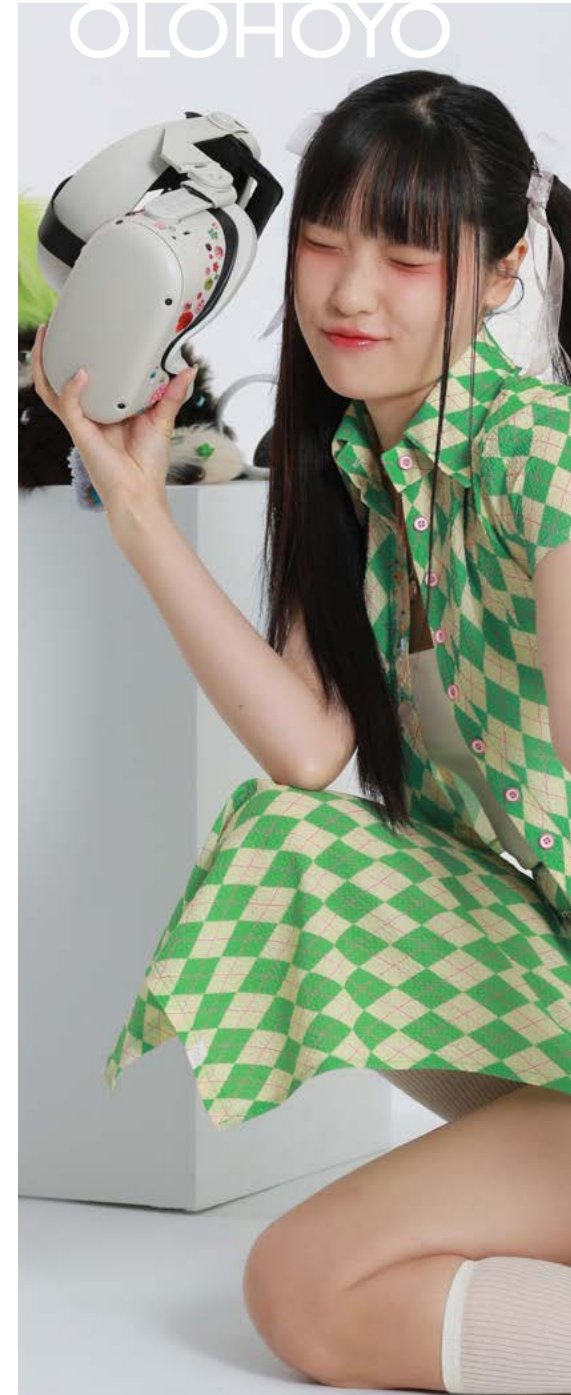
3D Art Work, Craft
@olohoyo

H(HERA). 올로호요는 누구인가?

OLOHOYO. 밀라노에서 패션을 공부했고 현재 서울에서 조형, 3D 등을 활용하여 인물과 감정 그 주변의 것들을 표현하는 작업을 합니다.



OLOHOYO



H. 내 작업이 가진 가치는?

OLOHOYO. 예술을 통해 사회적 문제와 인간의 복잡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다양성, 현대사회의 가치관, 인식을 다루고 있어요. 관람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인식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담아 작업을 진행해요.

H. 나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OLOHOYO. 자유로운 사고와 다양한 영감을 추구하며, 부정적인 요소들도 재미있는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좁은 시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언제나 배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H. 서울(도시)속 영감의 출처는?

OLOHOYO. 서울의 다양성, 거리마다 다른 감정의 파동과 다양한 사람들의 흔적.

H. 나는 도시 속 어떤 존재인가?

OLOHOYO. 나는 독립적이지만 다양한 사람의 시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존재.

H.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서울?

OLOHOYO. 서울은 상상력과 현실이 만나는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감정과 심리적인 에너지가 넘치며 환상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H.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 방향성과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OLOHOYO. 예전에는 실물 작업 그림이나 조형물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작업했다면 현재는 3D 등의 디지털 작업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특히 최근에는 숏폼 형태의 디지털 연작을 구상 중인데, 언제나 재미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H. 창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OLOHOYO. 생각의 출발이 특별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면 고양이, 강아지, 여행, 넷플릭스, 친구들과의 대화 등에서 만들어 내고 싶은 것이 생기면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재미 요소를 한 스펀 집어넣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H.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OLOHOYO. 원래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클래식한 사람인데, 작업을 하면서 창작에서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변화하는 현대 기술과 다양한 매체들을 보고 배우며 작업적으로 좀 더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싶어요.

H.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OLOHOYO. 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작업으로, 지리적 제약 없이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공감과 연결을 촉진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OLOHOYO

H(HERA). 버터컵은 누구인가?
Buttercup. 빛과 색으로 환상을 그리는 3D 아티스트 버터컵입니다.



BUTTER CUP



BUTTERCUP

H. 내 작업이 가진 가치는?

Buttercup. 상상한 것을 입체적으로 자유롭게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제 작업이 가진 가치인 것 같아요.

H. 나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Buttercup.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 매 순간 감사하자!

H. 서울(도시)속 영감의 출처는?

Buttercup. 서울엔 아름다운 카페, 공간들이 많아요! 그런 공간을 방문하여 즐기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H. 나는 도시 속 어떤 존재인가?

Buttercup. 환상을 꿈꾸고 그려내는 사람!

H.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서울?

Buttercup. 현실과 꿈이 공존하는 멋진 도시!

H.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 방향성과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Buttercup. 과거와 현재의 작업 가치관은 동일해요. 좋아하는 것을 그려나가는 것. 가치관은 동일하되, 표현할 수 있는 디테일을 지속해서 높이고 기술적으로도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3D 자체의 리얼함도 좋지만, 삽화 같은 느낌을 좋아해서 최근에는 두 가지 느낌을 결합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만큼 영롱이고 반짝이는 질감 표현에도 집착해요. 최근엔 듣기만 해도 설레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환상을 담아보려는 계획이 있어요.

H. 창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Buttercup. 개인 작품과 프로젝트를 할 때 그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개인 작품은 아이디어선 과정이 따로 있기보단 일상에서 메모한 것들을 활용해요. 환상적인 것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각을 잡고 아이디어선 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포착한 장면에서 시작할 때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최근 제작했던 <hulu>라는 탕후루 작품도 메모했던 것을 결합한 것이에요. 평소 산책을 자주 하는데 그날따라 달이 예뻐서 메모해 놓은 '달'과 디지털 중 과일과 관련된 것을 만들고 싶어 적어놓은 '과일',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냈어요. 과일을 떠올려 보니 최근 늦게나마 먹어보았던 탕후루가 떠올랐고 밤에 뜨는 달과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보석)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보름달이 뜨는 밤 먹을 수 있는 보석으로 꾸며진 반짝이는 과일꼬치 (탕후루) 'hulu' 작품이 탄생했어요.

H.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Buttercup. 3D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개인 작품 활동과 여러 프로젝트 및 전시에 참여하며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올해 가장 뜻깊고 감사했던 건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초청 강의를 다녀온 것이에요. 학생분들이 저를 알고 있는 것도 신기했고 제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해주신 것 자체가 크나큰 영광이었어요.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 실력도 중요하지만, 스타일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스타일은 유지하되 어떻게 하면 환상과 관련한 더 새로운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BUTTER CUP

BUTTER CUP

H.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Buttercup. '환상을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연령대 상관없이 모두에게 환상의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즐거움을 주는 아티스트로 각인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작년에 첫 개인전을 했을 때 관람객분이 작품을 보자마자 '와아~~~!' 감탄하시면서 작품을 찍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어요. 그 감사했던 감정을 기억하며 또 다른 다채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고자 해요. 일상에서 벗어나 고민 없이 작품 자체를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Studio ChaCha



Craft
@studio_chacha.kr

H(HERA). 스튜디오 차차는 누구인가?
스튜디오 차차(Studio ChaCha). 스튜디오 차차는 2020년부터 그라데이션 컬러와 유리를 기반으로 가구와 오브제를 만들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26

Studio ChaCha

Studio ChaCha

H. 내 작업이 가진 가치는?
차차. 익숙한 재료들을 낯설게 조합하여 새로운 미감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유리, 알루미늄 패널, 나무, 아크릴 등 익숙한 재료들에 그라데이션 색을 입히거나 비정형적인 형태로 바꾸어 새로운 물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 시각적으로 색다른 미감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H. 나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차차. 무의미한 움직임은 없다고 생각해요. 판생각을 하거나 쓸데없이 보이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당장은 무의미해 보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나를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어떤 무의미해 보이는 일에도 죄책감을 갖지 않고 열심히 집중해 보고 있습니다.

H. 서울(도시)속 영감의 출처는?
차차. 실체화된 영감은 아니지만 도시의 역동성에서 자극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인가 바뀌고 새로운 콘텐츠가 생긴다는 건 누군가 꾸준히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인데, 동료들의 끊임 없는 열정 속에서 자극받고 영감받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H. 나는 도시 속 어떤 존재인가?
차차. 서울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역동성'에 일조하는 개인. 개인들이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 고스란히 작업에 열정이 투영되어 더 세찬 역동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H.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서울?
차차. 분수, 깃발. 아이디어와 영감이 지속적으로 솟아 오르는 분수,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정체성을 지키는 깃발.

27

H.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 방향성과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차차. 과거에는 유리에 컬러를 넣는 작업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유리를 활용한 여러 제작 기법을 실험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기능이 있는 것들을 시도 중입니다. 근래에는 패션 디자이너 친구와 작업을 공유하다 아이디어가 떠올라 유리로 옷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중이에요. 유리라는 소재로 구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 옷을 만들어 익숙한 소재를 낯설게 바라보는 것을 시도 중입니다.

H. 창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차차. 유리로 진행한 자잘한 실험을 많이 찾아보고 그 안에서 여러 방식을 조합해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합니다. 유리는 다루기 아주 까다로운 소재지만 투명하고 반짝거리는 소재의 특성이 매력적이라 당분간 유리로 작업을 계속할 것 같아요.

H.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차차. 작업을 지속할수록 새로운 '나'의 다른 면을 발견하고 있어요. 비슷한 작업을 하는 동료들도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만의 것들이 섬세해지고 뾰족해지면서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관찰하면서 내 성향, 내 방향성, 내 관심사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펴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H.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차차. 나만의 것을 확장하는 사람. 나만의 걸을 가진 사람.

Kwon Keun Soo

Media
@keunsookwon

H(HERA). 권근수는 누구인가?

권근수. 패션 비디오키프로 활동 중인 권근수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가 담긴 패션 필름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이너 장르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28

KWON KEUNSOO

KWON KEUNSOO

H. 내 작업이 가진 가치는?

권근수. 똥똥 떠다니는 머릿속 이미지를 한데 모아 영상으로 표현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추구하는데요, 꿈결 같은 느낌을 자아내 실물치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H. 나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권근수. 비현실적이고 어딘가 나사 빠진 듯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완벽한 것을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H. 서울(도시)속 영감의 출처는?

권근수. 서울은 항상 봄이라서, 많은 게 피고 또 바로 지곤 해요. 그 속도와 역동성이 저에게 많은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철 꽃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라도 마음 속에 남아서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H. 나는 도시 속 어떤 존재인가?

권근수. 다양성을 불러오는 존재. 말하자면 세프의 키와 같은.

H.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서울?

권근수. 로켓 엔진을 단 자동차, 정장을 입고 벌이는 스티트 쇼, 나무를 깎아 만든 타임머신.

H.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 방향성과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권근수. 최근에는 좀 더 해석할 여지가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이 다소 상업적인지에 대해 고민하던 차에 어떤 분에게 '조금 더 파인 아트에 가깝다'는 평을 듣고, 현대 예술적인 개념을 조금 더 끌어들이 보기 위해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현대 예술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생소한 개념이고 책이 번역체라 이해가 어렵지만 그 점에서 매력을 느낍니다. '패션'이 중심이던 작품관을 조금 더 '나' 중심의 이야기로 가져오려 합니다.

29

H. 창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권근수.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첫 번째는 '신의 계시.' 머리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붙잡아요. 다른 하나는 전통적 발전 과정. 이미지 대신 단어를 적어나가고, 조합해 보고, 살을 점점 붙여가며 어떤 컨셉이 좋을지 점차 발전시킵니다.

패션 비디오는 로케이션, 모델, 스타일링, 스토리, 씬이 모두 한 번에 움직여야 해요. 일단 전체적 컨셉에 맞는 로케이션을 찾습니다. 기준은 최대한 컨셉과 어울리는가 혹은 충돌하는가를 봐요. 로케이션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스토리보드를 작성합니다.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무드 보드를 작성하고, 스타일링과 모델을 확정된 뒤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후 프리 프로덕션 중에 째름이 찾아낸 음악과 함께 편집 및 색 보정 후 게시까지 진행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품이 들어요.

H.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권근수. 작업을 하면 할수록 아쉬움과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아직도 눈에 띄니다. 업력이 길지 않기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직은 제 작업 스타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관통하는 큰 세계관은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걸을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시장은 포화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촬영 하나만으로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소리와 색을 담아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요. 주류를 따라갈 수 없기에, 저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어요.

H.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권근수. 시대를 풍미한 아티스트보단,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시각적으로 흥미롭고 즐거운 에너지가 전달되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싶어요.

KWON KEUNSOO

30

31

Craft
@suhyunarchive

H(HERA). 서수현은 누구인가?

서수현.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소홀히 여겨지는 감정 혹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에 영감을 받아 가구와 오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SUH SUHYUN

Suh
Suhyun



H. 내 작업이 가진 가치는?

서수현.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점, 즐거움의 감정을 작업을 통해 느낄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즐거움은 마냥 재미있는 감정이라기보다 슬픔을 극복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H. 나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서수현. 사랑이 많은 삶을 살고 싶어요. 제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쳐서 제 주변에게도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오래도록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저 편한 대로, 살아가는 대로가 아닌 매 순간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삶이면 좋겠어요.

H. 서울(도시)속 영감의 출처는?

서수현. 여러 도시를 여행해 봤지만 서울은 정말 매력적인 그리고 또 살기 좋은 도시예요. 옛것과 새것이 긴밀하게 어우러져 있는 서울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동네는 종로 일대예요. 평소 걷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동묘부터 광화문까지 쪽 뺨은 길을 걷다 보면 시각적으로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동묘에서 어떤 어르신의 상하의 컬러 조합, 청계천 근처 7-80년대 건물의 형태와 벽돌 모양, 정형화되지 않은 철제 구조물과 같은 것들이요.

H. 나는 도시 속 어떤 존재인가?

서수현. 대한민국, 특히 서울은 잠재력 있는 작가들이 모여 만드는 에너지가 굉장해요. 이 에너지는 다양한 특징들이 한데 모여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은 서울의 일상에서 영감을 받고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에 서울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 도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H.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서울?

서수현. 나의 삶, 나의 영감, 자유로움, 사랑

H.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 방향성과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서수현. 과거 동심에서 출발하는 작업을 할 때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마냥 즐겁고 행복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동심이 주는 느낌은 즐거움이니, 다 같이 행복하게 즐겼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누군가에게 동심은 기억이 안 날 정도의 희미한 것일 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슬픈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 이야기가 사람에 따라 일방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는 자유로운 해석의 여지를 남기려고 합니다. 작년부터는 동심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H. 창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서수현. 대부분의 영감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받아요. 가만히 길을 걷다 가도 잇! 하고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럴 때 사진으로 잘 기록해 두고 또 메모장에 글을 적어 두기도 해요. 그 기록들이 모이고 모인 뒤 작업할 때 하나씩 꺼냅니다. 재료나 컬러는 그때그때 작업실에 보이는 것들로 시작해요. 언젠가 다 쓰일 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것 하나도 쉽게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작업실에 점점 더 짐이 늘어나고 있지만...

H.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서수현. 2020년 졸업 작품을 시작으로 작업을 시작해서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는 현재의 업이 되었고 계속 하고 싶은 일이 되었어요. 작업을 알아 봐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먼 길까지 작업을 보러와 주시는 분들,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 등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신기하고 기뻐요. 더 열심히 작업해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H.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서수현. 오래오래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작업을 많이, 자주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달렸었는데, 여유 없이 달려오니 정작 표현해야 할 것들이 고갈되더라고요. 내 안의 생각들과 에너지를 충분히 채워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데, 채울 시간도 없이 쏟아내는 것이 저에게는 역부족이었나 봐요. 앞으로는 작업에 대한 열정은 물론이고, 저를 잘 채워 가면서 제 생각을 오래오래 작업으로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Sun Lee

Installation
@sunleeart

34

H(HERA). 선리는 누구인가?

선리. 회복의 목욕 공간을 표현하는 설치 미술작가, 선리입니다.



SUN LEE

SUN LEE

H. 내 작업이 가진 가치는?

선리. 환경과 몸의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신체의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회복의 방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화장실과 사우나를 포함한 물이 있는 공간을 회복 공간으로써 재해석하는 설치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작품을 통해 긴장감이 만연하는 일상 속에서, 차분하고 고요하게 존재할 수 있는 각자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을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H. 나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선리.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요. 다양한 경험이 제 성장 가능성을 확장하고, 이는 작업의 단단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H. 서울(도시)속 영감의 출처는?

선리. 일상의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는 데, 특히 역동적인 도심 속에서 현재 상태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상황을 찾는 편이에요. 보통 목욕 공간이나, 리서치 작업을 진행하는 가회동에 위치한 한옥이 그런 공간이에요.

H. 나는 도시 속 어떤 존재인가?

선리.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서울은 저의 작업을 포함하여 모든 것과 밀접하게 연결된 아주 소중한 도시예요. 화려하고 역동적인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저만의 가치와 리듬을 찾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H.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서울?

선리. 호흡: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룸. 또는 그 조화. 다양한 호흡으로 이루어진 생동감 넘치는 도시

35

H.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 방향성과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선리. 과거 지속적인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염증성 질환을 겪었던 경험을 계기로, 2017년부터 외부의 자극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신체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입체, 설치, 평면 콜라주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합니다. <Melting Point> (2018)와 <G3 6QT> (2021)에서는 유학 시절 거주했던 기숙사의 화장실에서 경험한 목욕이라는 행위를 회복의 한 방법으로서 구현하는 작업을 선보였고, <Blue Sauna: 블루 사우나> (2022), <Crying Bath> (2023), <I am relieved> (2023)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사우나를 기반으로 목욕이라는 일상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목욕 공간을 회복의 공간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어요.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우나의 유래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껴, 최근에는 기존 작업의 개념을 문화 예술적 맥락에서 확장할 방법과 관람객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작품의 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H. 창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선리. 지금 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준 경험과 공간이 주로 제 작업의 시작점이 돼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작업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평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틈틈이 메모하고 드로잉을 해요. 여러 경험의 조각들이 모이면 관련 서적이거나 다큐멘터리,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업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합니다.

H.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선리. 회사와 작업을 병행할 때와 퇴사 후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현재를 비교해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고민 끝에 얻게 된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 후회 없을 정도로 열심히, 즐기면서 작업하자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조해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꾸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만들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면서 몇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지금보다 좋은 컨디션의 작업실에서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전시와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고 싶고, 많은 관객에게 제 작업을 선보일 기회가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H.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선리. 제 작업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존재감이 뚜렷해지는, 부드러우면서 힘 있는 창작자로서 기억되고 싶어요.

H(HERA). 미리는 누구인가?
미리(MIRI).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작가 미리입니다.



H. 내 작업이 가진 가치는?

미리. 저는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곤 해요.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보다 동생의 삐뚤삐뚤한 스케치북 그림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요. 제가 하는 작업 또한 그래요. 이런 곳에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구나, 이 완벽한 배경에 크레파스로 낙서를 할 수가 있구나, 하며 오히려 더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불완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H. 나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미리. 마음껏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대상이 열대어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팬케이크가 될 수도 있지만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계산 없이 솔직하게 오랫동안요.

H. 서울(도시)속 영감의 출처는?

미리. 나란히 짝을 지어 손잡고 길을 건너는 유치원 아이들, 돼지 저금통을 풍선처럼 100개씩 묶어 오토바이에 싣고 달리는 아저씨, 자기 몸만 한 똥똥한 고양이를 양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는 꼬마 아이, 서로를 지긋이 쳐다보며 팬케이크 소스를 부어주는 연인,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자의 사랑스러움 등

H. 나는 도시 속 어떤 존재인가?

미리. 슈퍼마리오 게임에 나오는 키노피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서울을 아끼고 사랑하기에 더 지키고 싶어 하는, 그래서 괜히 더 사나워 보이고 싶어 하는 느낌이에요.

H.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서울?

미리. 다른 곳에 가도 결국엔 돌아오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나의 소울메이트.

H.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 방향성과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미리. 과거에는 주로 영화 감상을 통해 영감을 얻곤 해서, 영화적인 이미지가 연출되었다면 지금은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작품에 많이 투영되곤 해요. 요즘은 스프레이 아트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공개하진 않았지만 아트퍼니처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H. 창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미리. 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때문에 야외활동을 선호하며, 여행을 가더라도 그곳의 배경이 아닌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곤 합니다. 작업에 대한 계획은 철저히 짜는 편이지만, 그림은 즉흥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작품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서 스케치 없이 바로 그려내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H.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미리. 작업을 하면서 지도 몰랐던 저의 취향들을 알게 되었고, 또 주변의 것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말과 글보다는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단순한 쪽지 하나에도 저의 그림을 그려 넣곤 합니다. 앞으로도 제 마음을 담은 무언가 들을 계속 창작해 내고 싶습니다.

H.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미리. 항상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MIRI

Frame @boatrace_a

H(HERA). 보트는 누구인가?
BOAT. 일러스트, 회화 등 캐릭터 그림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BOAT



H. 내 작업이 가진 가치는?

BOAT. 그럴 때 제가 즐거운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즐거워야 보는 사람들도 그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H. 나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BOAT. 큰 계획 없이 매일 주어진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다 중간에 딴 길로 새서 맛있는 걸 먹거나, 예쁜 카페를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제 소소한 행복 중 하나예요. 이것이 나의 스타일(?)일지도..

H. 서울(도시)속 영감의 출처는?

BOAT. 서울의 길거리. 산책하며 마주하는 서울의 길거리에는 모든 것들이 존재해요. 귀여운 스티커와 낙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고양이, 거기에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부분이 큰 영향을 줍니다.

H. 나는 도시 속 어떤 존재인가?

BOAT.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자 노력하는 배짱이?

H.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서울?

BOAT. 물결이 치는 도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보다 계속 흐르는 강물처럼 작고 큰 물결이 존재하는 곳이라 생각해요. 새로운 물결이 치는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라 이곳에서의 생활이 즐거워요.

H.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 방향성과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BOAT. 과거와 현재의 작업방식 중 가장 큰 차이점은 디지털과 수작업이라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는 디지털 위주의 일러스트 작업, 현재는 그 세계관 속의 인물들과 물건을 꺼내어 본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이 작업의 지속이에요. 화면 밖으로 꺼내진 실물 작업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전달하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궁극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공감가능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작업을 구상하고 싶습니다.

H. 창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BOAT. 재료와 컬러 선택은 패션이나 자연에서 얻을 때가 많아요. 나무라는 재료를 선택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쉽게 커팅이 가능한 점, 둘째, 단단하고 견고한 점, 셋째, 자연물이 전해주는 특유의 무게감과 느낌 등이 있어요. 색감은 보통 패션 화보, 옛 애니메이션의 색감, 앨범커버에서도 영감을 받는 편입니다.

H.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BOAT. 작업은 하면 할수록, 재미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미의 언어(그림)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들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인상을 남기지 못하면 아쉽게도 그 작업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작업이라는 게 제 작업 신조예요.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제 작업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변화를 겪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리고 남을 설득할 만한 작업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속에서 이제야 어떤 것을 그리고 이야기해야 할지 조금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작업은 지금의 작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H.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BOAT. 익숙하지만 낯선 작업을 하는, 작품을 보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BOAT

BOAT

그보다 선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미래에는 생각이 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타인에게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는 일이 가장 뿌듯하고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H(HERA). 밍예스는 누구인가?

MINGYES. 안녕하세요. 식물과 예술의 경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는 밍예스입니다.



H. 내 작업이 가진 가치는?

MINGYES. 자연 속의 귀여운 면모를 발견하고 이를 워트 있는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작품을 접하는 순간의 현실을 마법화 하는 것.

H. 나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MINGYES. 편견 없는 시각과 다양한 관점에서 창의적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기.

H. 서울(도시)속 영감의 출처는?

MINGYES. 서울의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꾸는 유연성에서 기인한 창조적 에너지와, 변화무쌍한 역동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한 영감을 받는 편입니다.

H. 나는 도시 속 어떤 존재인가?

MINGYES. 싹을 틔우는 초록색 잔가지.

H.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서울?

MINGYES. 생동감

H.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 방향성과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MINGYES. 이끼를 관찰하면서, 어디에서든 잘 자라며, 끈질기게 생존하면서 면적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이끼의 생동감 있는 텍스처를 텍스타일 오브제의 다채로운 실을 통해 전달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오브제들은 플러피한 질감을 자유롭게 구현하는 데 노력하면서, 하나의 패널 단위로 제작해 해체 후 재조립이 가능하게 해 지속가능성을 부여했습니다. 증식의 속성을 내포한 이끼의 성장 방식을 제작 방식에도 투영했어요. 모듈형으로 면적을 확장해 나가는 작업방식은 크기의 경계 없이 자연스레 볼륨감이 커지게 되었고, 압도감 있는 스케일의

설치미술로 확대되었습니다.

초기 작업인 <MOSS SERIES>는 평면 텍스타일 작업을 면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켰다면, 최근 작업인 <STEM SERIES>와 <HUGEL KULTER>에서는 입체적인 속성이 공간에서 더 다채로운 존재감으로 느껴지는 설치 작업으로 확장 중입니다. 유연하게 형태가 바뀌는 Soft Sculptor가 설치 방식에 따라 다른 형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매력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공간 설치 작업을 좋아하는 점이기도 하고요.

H. 창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MINGYES. 식물과 관련된 자료에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저만의 미감을 반영해 문학적으로 시각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AESTIVATION> 작업은 찰스 다윈의 '식물의 운동력'에서 출발했어요. 다윈에 따르면 모든 식물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표면 양쪽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회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는데, 이때 식물의 싹이 자전하며 생기는 탄성이 진동을 만들어 내고 성장을 증폭시킵니다. 저는 인간의 삶 또한 어떤 탄성의 순간이 자극되어 진동이 시작되고, 지속해서 움직이는 무한한 원형 운동으로 확장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련의 생각을 작업으로 시각화했습니다.

H.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MINGYES. 현재는 석사 과정에서 다양한 탐구를 하고 있어요. 식물이 구조적 형태로 반복적 패턴을 만들어 내는 알고리즘 (인맥, 피보나치수열) 혹은 줄기의 회전 운동 등 식물 세계의 과학적 이론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찾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식물의 구조적인 형태를 수평·수직으로 패턴을 만드는 직조 방식과 시각적으로 치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식물을 리서치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론들이 많은데, 이를 저만의 미감으로 치환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관람객들이 식물의 기괴하지만, 발달한 면모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H.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MINGYES. 저는 텍스타일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저의 미감을 전달하는 비주얼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심히 재료를 관찰하고 새로운 질감을 발견하여,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감을 자극해 총체적 경험을 제공하고, 관객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선호합니다. 플러피한 질감으로 물리적·시각적 촉감을 자극하고, 둥글고 부드러운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형시키며 공간을 넘나드는 지금의 작업처럼요. 촉각에 집중하여 독특한 질감을 발견하고, 자연을 주제로 재해석한 작업을 이어 나가고 싶어요. 이러한 정체성을 확장하여, 시각과 촉각이 주는 솔직한 즐거움에 주목한 설치미술로 사람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고 싶습니다.

H(HERA). 하형은 누구인가?

하형. 창작 집단 이즈디프린트에서 비주얼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하형입니다. 시각적인 자극을 좋아하고, MBTI는 ENTP 가끔 INTP로 나오기도 해요.



H. 내 작업이 가진 가치는?

하형. 저를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해요. 예쁜 걸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느끼곤 합니다.

H. 나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하형. 꾸밈없이 담백하게, 가장 나답게 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H. 서울(도시)속 영감의 출처는?

하형. 밤과 낮 그리고 내 친구들, 매 순간 자연스럽게 영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H. 나는 도시 속 어떤 존재인가?

하형.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영감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H.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서울?

하형. 매 순간 끊임없는 자극을 주는 존재.

H.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 방향성과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하형. 현재는 조금 더 사실적인 작업을 진행하려 노력 중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다양한 문화를 느끼고 경험하고 싶어 해외를 자주 오가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새로운 관심사라면 여행?

H. 창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형. 주로 집에서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기 전에는 노는 게 재미없어질 때까지 놀곤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 대화하며 술에 취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해요. 그러다 딱 “지금이다.” 싶을 때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맨날 노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H.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화된 점이 있다면?

H.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하형. 요새 해외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느낀 점이 많아요. 멋지고 예쁜 걸 느끼는 것에는 문화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H.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지?

하형. 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남고 싶어요.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조금이라도요.

HAHYUNG

HAHYUNG



H E R A
S E O U L

C·CREW

목차

MYSELF: 예술과 나 사이^{4p}

HERE: 서울일지^{42p}

ZOOM IN!^{52p}

NOW: 예술가들의 시대 사용 방법^{98p}

MYSELF: 예술과 나 사이

Amira
Halfpy
Mingyes



play

▶ QR 코드를 통해 인터뷰 영상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활기차고 다채로운 서울 속에서 또 다른 세 명의 예술가를 만났다.
따뜻한 식물과 이끼의 군집을 자아내는 밍예스, 모텔과 예술가의
정체성을 자유로이 오가는 하피, 그리고 거울을 통해 공간과 상상력을
확장하는 아미라. 이들은 서로 다른 시각과 예술적 언어로 도시의
풍경을 느낀다. 예술의 힘으로 서울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의 영상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작업과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MINGYES 인터뷰 영상 보기

MINGYES



저는 사실 어린 시절을 군산에서 보냈어요. 주변에 흙들과 맑은 공기, 초록색 에너지가 넘쳤었죠. 시간이 지나서 서울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어린 시절의 내가 자유롭게 향유했던 그 흙의 감촉과 맑은 공기, 초록 에너지들이 소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늘 영감과 새로운 자극을 주는 여행에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죠.

▶ 해당 장면의 영상 위치

▶ 0:00:30



시칠리아에서 만났던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보다 큰 가로수 선인장들,
스페인에서 만났던 뜨거운 태양 아래
바삭 마른 돌 틈 속 빠져나온 야생
풀들 등 남들에겐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자세히 바라보다 보면 새로운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 0:00:45



© 0:00:51



© 0:01:01



많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생긴
저의 가장 큰 가치관 중 하나는 '편견
없는 시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창의적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내뿜는 푸른 에너지는
좋아하죠. 텍스타일 샘플 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만든 초록색 덩어리가
제 눈에 마치 이끼처럼 보였어요.
이끼처럼 싱그럽지만 농밀한 색을
띠고, 귀엽지만 약간의 징그러운,
그런 양면성이 대립하는 점점의
독특함을 좋아해요.

제 작업들은 자연 속의 귀여운 모습을
발견하고 이것을 위트 있는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자연의 잠재적인 마법의
순간들을 새로운 감각과 인식의
가능성으로 실험하고 싶어요.

© 0:01:32



© 0:01:58



서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동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저는 마치 야생 속에서 빛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줄기와 같아요.
 서울의 치열하고도 자유롭게 형태를
 바꾸는 유연성은 창조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변화무쌍한 역동적인
 분위기 속에 다양한 영감을 저에게
 주죠.

Ⓞ 0:02:06



Ⓞ 0:02:19



제 작품 또한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유기적 성장을 하는 자연처럼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자가증식
 시스템의 시각적 재현으로, 한 이끼
 조각이 모듈화되어 균락을 이루는
 거대한 설치작품으로 확장되죠.

Ⓞ 0:02:25



© 0:0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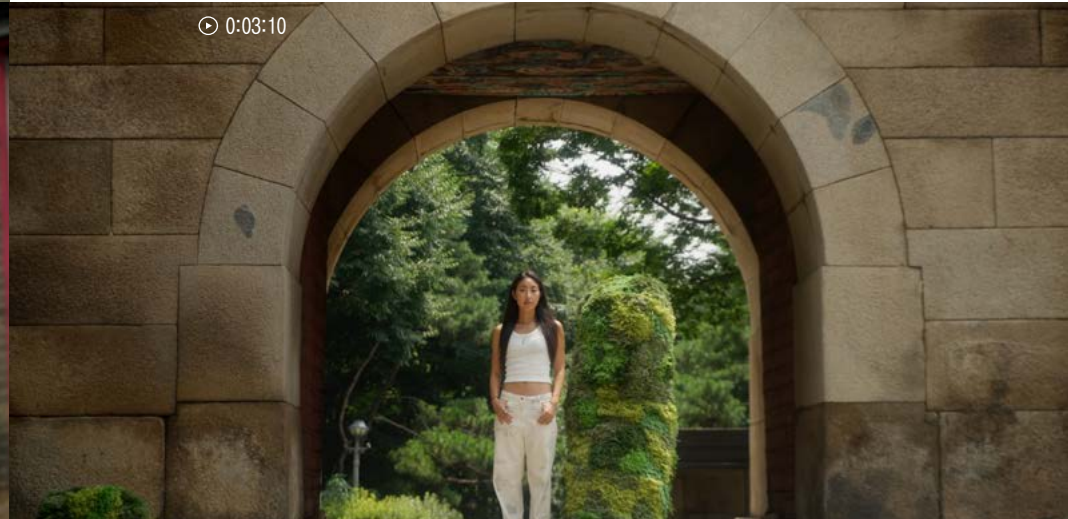
사람들이 공간에서 새롭게 감지되는
감각과 존재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한편으로는 편안하게 느끼는
대체 자연의 장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저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이끼가 어디든 적응하고
증식해 나가는 속성을 실제 제 작업에도
투영시켰고, 이런 방식은 무한하게 확장
가능하며 공간을 잠식해 나가죠.

© 0:02:42



© 0:03:10



© 0:03:07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퍼져가는
'creativity' 처럼, 상상력이 발휘되는
장치로서 밍예스의 다양한 작업 세계
안에서 많은 분들이 역동적인 생명력을
찾길 바라요. **Fin**



HALFPY 인터뷰 영상 보기

HALF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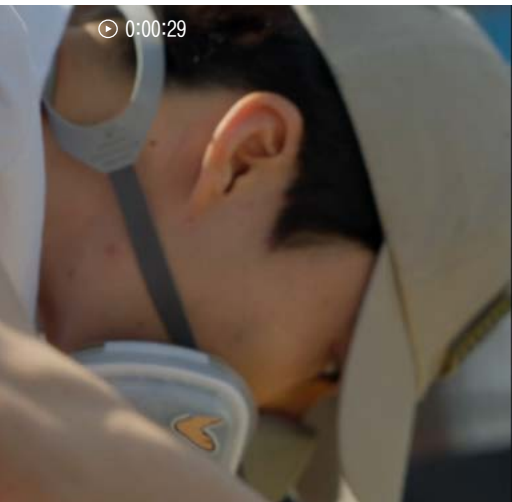
21



© 0:00:00-0:02:54

본격적으로 그림이라는 것을 꿈으로
갖게 된 것은 주변에 있는 예술가
친구들을 보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림으로 멋진 움직임을 가져가는
이들을 선망하면서 저도 훗날, 저 또한
그림을 가지고 멋진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이런 자신감은 저에게 '일단
도전하자'라는 마인드를 심어줬어요,
그리고 모델이라는 꿈, 새로운
도전으로도 이어졌어요. 평소에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 패션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모델과 그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칭찬받는 게 정말 좋았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당시에 받았던 미술대회 상장이 어찌나
좋았던지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해낸 일들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꿈을 꾸게 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루고픈 꿈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확신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멋지게
사는 이들은 늘 제 심장을 뛰게 합니다.

© 0:00:54



© 0:01:18



© 0:01:25



서울이라는 도시는 에너지를 모으고
영감을 나누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부지런히 도시 속
다양함과 교류하고, 다양함 속 늘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

예술가, 혹은 모델이라는 직업의
가치는 늘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에 있어요.

© 0:01:29



무언가를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게 되고 그 풍경이 때로는
뿌듯함을 안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도 해요.

© 0:0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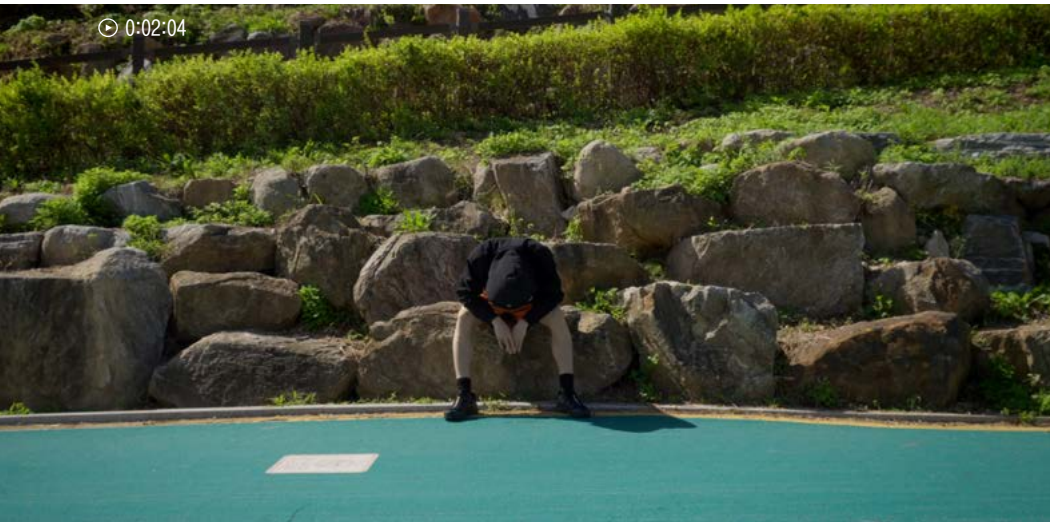


© 0:01:51



살다 보면 번아웃이 올 때도 있고
속도가 더더질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될 것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본인이 꿈꾸는 일을 정말 사랑하면
잠시 멈추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 0:02:24



멋지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꿈과 야망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꿈은 목표점, 야망은 엔진이라고 볼 수 있죠. 제 꿈은 HAPPY 이며 제 야망은 HALFPY 입니다.

이 도시처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하며 삶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 얼마나 멋진 삶인가요?

© 0:02:34



저는 예술가 HALFPY 그리고 모델 김태호 입니다. Fin

© 0:02:41



© 0:02:43





AMIRA 인터뷰 영상 보기

AMIRA

33



0:00:00-0:03:40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상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평소에
유쾌한 생각을 하며 그런 생각을
작업으로 탄생시키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산책을 좋아해요. 길을 가다
발견하는 엉뚱한 영감은 그 시간이
일상에서 제일 흥미로운, 마치 모험
같은 시간이 되게 하곤 합니다.
무언가에 반사된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안의 모습은 정말 존재하는 곳이진
않을까, 지금 이 순간과 단 0.1초도
오차가 없을까 상상을 하고는 해요.

© 0:00:11



© 0:00:20



© 0:00:33



기대가 되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나에게 맞는 길이 아니구나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또 다른 방법을 찾곤 해요.

누구나 좋은 예술가로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고비가 있잖아요.

정답도 방법도 없는 길이니깐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정해진 정답과 방법이 없다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어떤 방법으로든 꿈까지 도달을 하면 그게 나만의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0:01:19



© 0:00:36



© 0:01:30



저는 일상과 작업에 경계가 없는
편이에요, 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 상상에 최대한 집중을
해요. 저는 주로 앉아서 고심하기보다
곳곳이 재밌는 곳을 찾거나 몽상
속에서 발견한 영감으로 시작된
작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 0:01:49



© 0:01:42



저에게 거울은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재예요. 실제로 다양한
쓰임이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 거울은 저에게 또 다른
세상으로 다가와요. 제가 관찰자가
되어 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망원경
같기도 하고, 높이 달아 창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거울의 순수한
기능을 배제한 채 작업을 시작해요.

© 0:01:45



© 0:02:24





제가 본 서울은 많은 것들이 동시에 공존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함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또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그런 게 서울이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서울은 여러 가지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꼭 제가 다루는 금속 같기도 하고요.

금방 식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차갑게 냉정하기도 하지만 뜨겁기도 한, 그런 도시.

문득 떠오른 일상속에 유쾌한 생각들을 작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게 곧 저인 거 같아요 그렇게 유쾌하면서 또 다정하고 편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술가 아니라, 일상 속 영감을 통해 거울 오브제를 만듭니다. **Fin**

HERE: 서울일지

∴ 서수현	ZOOM IN
∴ 선리	∴ 권근수
∴ 스튜디오 차차	∴ 정해강
∴ Amira	∴ 하형
∴ Boat	∴ Buttercup
∴ Halfpy	∴ minraindali
∴ Mingyes	∴ Miri
∴ OLOHOYO	∴ SILVER JO

서울. 서울이란 도시는 말할 때마다 정체를 달리한다. 서울시 슬로건 공모전에서 'I SEOUL YOU'나 'SEOUL MY SOUL' 같은 추상적 문장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 것 역시 이 도시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일 테다. 매사 사람들에게 신선한 자극 줘야 할 임무를 띤 작가들에게 서울은 어떤 의미일까. 서울에서 나고 자란 작가들에겐 고향이 어떻게 보일까. 부푼 꿈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상경한 작가들에게는? 이들 모두 서울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사는 걸까?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 HERA C·CREW 15인에게 서울 거주 일지를 써 달라 청했다. 이들이 서울과 함께 기록한 단어 및 문장 일부를 나열하자면 이렇다. 잠실 어딘가의 전봇대, 이태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팬케이크 가게, 잔잔한 한강 물결, 전문가가 포진한 을지로와 문래, 높은 빌딩과 화려한 자동차, 남산 타워……. 각 도시의 매력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그중 서울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기묘한 영감의 집합체인 듯 보인다. 서울에서 지내는 자신을 인식 않고 살아가던 중 “이건 서울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야” 변칙 깨달은 사건이 있진 않을까. 지금부터 작가들이 적어 둔 서울에서의 하루를 엿볼 차례다.

서수현

일-작업-일-작업의 굴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나는 투잡러다. 작업과 동시에 '수우아트'라는 팀을 만들어 아트 디렉팅과 세트 디자인을 하고 있다. 고정적 수입을 위해 가볍게 시작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확장하며 지금은 직원까지 생겼다. 일이 늘어날수록 작업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건 이뿐만 아니다. 내 체력도 함께 떨어지며 자연스럽게 삶에서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일과 나의 작업, 둘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종종 균열이 생긴다. 촬영을 끝낸 후 HERA C.CREW 작업을 위해 책상에 앉아 잠시 고민했다.

'너무 피곤하다...그만 자야 하나' 하지만 잠을 포기하고 작업을 시작한 지 5분이 지났을 때쯤 완전히 몰입한 나를 발견했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 나를 충전한다. 아무리 바빠도 이제껏 그래왔듯 작업을 조금씩, 꾸준히 이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이 아니어도 된다. 짧은 그 과정을 즐기면 된다. 그거면 됐다.



스튜디오 차차

서울은 작업하기에 최적의 도시다. 이곳에서 나는 작업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재료일 경우 1~2일 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을지로와 문래 부근엔 오랜 경력의 작업자가 많아 협력하거나 새로운 조연을 얻을 기회도 풍부하다 (그들의 냉정한 조연에 가끔 눈물을 쏟을 때도 있지만...). 이러한 환경 덕분에인지 작업자들이 점점 늘어나 서울 내 다양한 전시가 열린다. 다양한 작업과 전시를 보며 열정과 좌절을 동시에 느끼곤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도시의 역동성이 나를 더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일 테다. 도시의 끝없는 활기와 자극은 내 성장의 기틀이 되어준다. 서울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내가 그 가능성의 일부라고 믿는다.



선리

봄비는 서울은 지친 내게 다시 일어나 달릴 활력을 준다. 가끔은 쉬지 말고 빨리 나아가라고 재촉해 어지러울 때도 있지만, 잔잔한 한강 물결과 푸른 산 같은 서울 속 자연은 나를 깊게 호흡하게 한다. 지금의 나를 형성한 다양한 요소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도시, 서울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동안
 나와 함께 지내는 강아지, 고양이와
 침대 위를 굴러다닌다. 태평한 나와
 달리 서울이란 도시는 빠른 변화로
 넘실댄다. 도시 속 사람들은 내게
 끝없는 상상을 자극하는 작업의
 매개체다. 각자의 밝기로 빛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영감을
 받아 작가인 나의 특별함을 빛내고자
 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다.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광활한 땅이 있는 미국에선 차가
 없으면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했다.
 그때 내 친구가 되어준 것은 미국의
 애니메이션, 한국에서 가져온 삼국지
 만화책, 그리고 색연필이었다.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은
 나와 동생만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출근, 나와 내 동생의
 등교를 돕고 나면 집에 혼자 남아야
 했다. 그녀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수화기 너머 한국에 있는
 가족뿐이었다.

심리적인 고립을 느꼈던
 어머니는 한인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낯선 땅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어머니에게 큰
 활력이었다. 사람에게 얻는 활력뿐만
 아닌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커지며
 어머니는 안정을 찾았다. 어머니를
 위해 주말이면 다 함께 교회에
 나갔다. 성경을 다룬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
 종교적 의미가 있었다기보다 나와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언어를 쓰는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최신 가요를
 부르는 기분이었다.

유년시절 미국 생활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일들과 이야기,
 그것이 내포한 이미지가 내 작업의
 주요한 영감이 된다. 현재 나는
 서울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영감이 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날지 스스로도 무척 궁금하다.



Amira

이 시대의 어떤 예술가가 될 것인가. 자신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작업이 탄생한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예술가에게 중요한 여정이다. 이 영상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은 거울을 소재로 고뇌하는 모습을 담았다.



Boat

서울은 참 재미있는 도시다. 급격한 성장을 이룬 도시라 그런지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을지로에서는 8~90년대의 정취를, 광화문 일대에서는 조선 시대의 흔적을, 여의도와 강남에서는 현대적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색을 갖춘 서울. 과거의 내겐 정리되지 않은 도시처럼 보여 아쉬웠다.

서울은 마치 나를 대변하는 것 같다. 자신만의 분명한 색을 갖춘 친구들과 달리 나의 색은 애매하고 평범하다 생각했다. 작가로 살며 이 고민은 더욱 커졌다. 그래서 한동안은 나를 포장하며 살았다. 할 수 있는 모든 '척'을 하며 내가 보이고 싶은 색깔을 만들었다. 혼란스러웠던 20대였다.

지금의 나는 내가 정리되지 않은 물감이 아닌 팔레트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 무수한 사람과 정확히 무슨 색깔이라 정의할 필요는 없다. 평소에는 듣지 않았던 음악 장르가 좋아지기도 하고, 먹을 일 없던 음식에 도전하며 나도 몰랐던 나를 알아간다. 매일 재미있는 도전으로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는 서울. 그리고 그 도시 속 살아가는 나. 나는 나와 닮은 서울이 참 좋다.



HERE: 서울일지

ZOOM IN!

▶ C.CREW 7인의 삶을 더욱 가까이서 경험해 보세요.

권근수
정해강
하형
Buttercup
minraindali
Miri
SILVER JO

표류의 순간들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1년까지의 시간을 호주에서 보냈다. 이후 영국 London college of Fashion 사진 학과에 입학하며 또 다른 4년을 보냈다. 그토록 동경했던 학교에서 보낸 시간들. 그 시간은 나에게 무엇을 뜻할까? 지나온 날을 회고하면 마라톤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처럼 강렬한 성취와 탈진 증상을 동시에 느낀다. 영국에서 지낼 때 모텔 에이전시의 비디오 그래퍼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지만 군 복무를 위해 귀국해야만 했다.

호주와 영국, 한국을 오가며 플랑크톤과 해파리처럼 정처 없이 해류에 휩쓸렸다. 이처럼 어디에도 정박하지 못한 나의 뗏목은 파도의 흐름에 따라, 도착지 없이 흘러갈 뿐이다.

나는 작업실이 없다. 작년에는 공유 작업실에 입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차장이 근처에 있어 소음 공해에 시달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들 대로 든 공간이었다. 하지만 소음뿐만 아닌 냉난방이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도망치듯 짐을 싸서 나왔다. 지금 나는 정해진 작업실이 없는 만큼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머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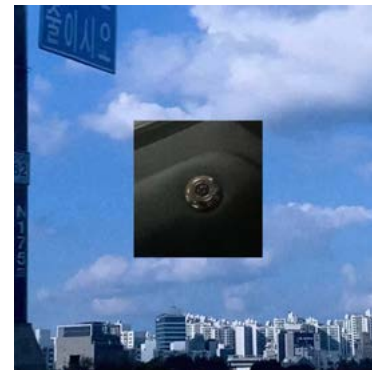


작업한다. 주로 집 앞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는데 직원이 공짜로 커피를 더 준다. 재미있는 사실은 열심히 단장하고 나간 날엔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다.

생각해 보면 나는 졸업한 지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이다. 하지만 유명 매거진에 등장한 나의 동기를 보며 시기와 질투를 느낀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바꾸게 해준다는 남미의 부두 주술사에게 의뢰하지 않는 이상 나는 나일 수밖에 없다. 매번 외로움 싸움이다. 물이 차오르는 구멍 난 쪽배를 가라앉히지 않기 위해 끝없이 물을 퍼내야 한다. 크루즈 파티 따위를 생각할 겨를은 없다. 나는 이 시간을 일종의 수도 기간으로 명명한다. 세일러문이 아닌 한 누구도 한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순 없다. 걱정적 음악과 함께 분홍 리본이 빛나는 몸을 감싸며 한번에 옷을 입혀주는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변이 불타고 있다면 고구마를 구워 먹자”

내 기분은 이다지도 오락가락이다. 어느 날은 온 세상이 부서져 내릴 듯 괴롭다가도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 않다. 위의 글은 하늘이 깨지는 듯 고통스러운 날에 쓴 글이다. 주변이 불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달리 먹었다. 그 불에 고구마나 굽는 수밖에.





**SEOUL
MY IDEAL
MY PASSING PLACE
MY HOME
WE ARE TOO CLOSE
BUT TOO FAR AWAY**

영국에 있을 때 어느 가수의 인터뷰를 촬영한 적 있다. 비디오 촬영을 마친 후 인터뷰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BTS (Behind the scenes)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었다. 당시 짐차 이름을 알려 나가던 그 가수 부모님의 고향은 어느 섬나라였다. 아무리 들어도 생소한 이름의 나라라 세 번이나 고쳐 써야 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서두르지 마세요. 어른이 되려고, 실력을 키우려 서두르지 마세요. 그저 즐기는 것으로 충분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위 가수의 말이 스치듯 떠오른다.

서두르지 말자. 그러니 기다린다.

내가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되는 순간을.

정해강

안녕, 세상의 여러분!
저는 정해강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과 이 글이 언제 만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글자들은
10월의 막바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2023년도
작년이 되네요. 시간의 빠르기가
믿어지세요? 이 지면을 통해
올해 누군가와 나눴던 재미있는
순간을 돌아보려고 해요. 어떤
사진과 이야기들, 조각 기억을
[서울일지]라는 이름의 쪽지로
남겨 보려고요. 제 대부분의
하루처럼 두서없고 황당한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모쪼록 재미있게
봐주시길!

서울일지 2023년 1월~평창동

오늘은 가족들과 잔치국수를 해
먹고 집에 고이 모셔져 있던 가족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1월이라는 이유로 잘 꺼내 보지
않던 부모님의 젊고 어리던 시절
사진을 잔뜩 꺼냈어요. 엄마 아빠의
도전적인 패션을 보며 깔깔 웃다
'너는 고등학생 때 더 심했다'는 말을
듣고 순간 웃음기가 싹 가시기도
했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 사진을
세상에서 없애 버리는 데 온 정성을
다해왔습니다).

사진으로 남은 부모님의 옛된
얼굴보다도 시선을 사로잡는 건 엄마
아빠가 남겨둔 한 줄 메모였습니다.
앨범 맨 뒤에는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재치
있는 클로징 멘트까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라서 좋았어요. 예전에는
'잔치국수'라는 이름이 평소에
자주 먹는 요리치고 거창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다 같이 모여 앨범을
뒤적이며 깔깔 웃는 날에 먹는
음식의 이름으로는 딱 좋았습니다.

서울일지 2023년 2월~3월-

성내동, 관철동

군침 도는 사진이죠? 친구 N과
호프집에서 먹었던 안주들입니다.
N은 제가 성내동에서 공방을
운영하던 시절 친해진 동네
친구입니다. 사는 곳이 멀고, 친해진
지 몇 해 되지 않았는데도 서로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술집에서
만나더라도 그 시간이 참 값지게
느껴지곤 해요. 저보다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꾸려 나가는 N이 해준
말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좋은
말이라 기록해 둡니다.

해강 (어찌고저찌고 불평불만...
속상한 이야기보따리 풀기)

N 해강아, 너 그래도 그 사람을
가깝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해강 왜?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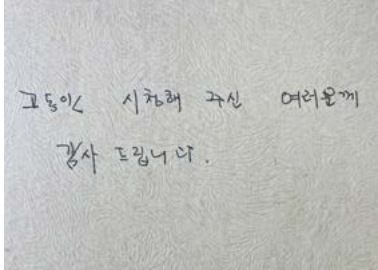
N 네가 그 사람을 말할 때 '개'라고
안 하고 '애'라고 하잖아.

해강 그게 왜?

N 쓰는 말에서 마음이 드러난다는데
저 멀리 '개'가 아니라 가까이
'애'라고 하니까.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면 '개'라고 하게 되더라고.



2023년 2-3월 성내동,관철동 ▲



2023년 1월 평창동 ▲

2023년 5월 평창동 ▼



‘개’가 되기 전에 이야기 잘 해봐!

서울일지 2023년 5월-평창동

이 어이없도록 태평한 강아지의 이름은 첫눈입니다. 첫눈이는 작년부터 우리 가족이 되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몸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가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자리에 드러눕는 게 취미이고 눈치 보지 않기가 특기입니다. 철저한 응석받이라 알미울 때도 있지만, 갓 한 살이 된 강아지답게 새로운 것에 겁 먹으면서도 엄청난 호기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자면 귀엽고 대견하기까지 해요. 산책할 때 제 눈엔 보이지 않았던 조그만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공들여 냄새를 맡는 첫눈이에게 무언가 배우기도 합니다. 첫눈이와 여러 가지를 새롭게 탐구하고, 탐험하며 오래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첫눈 사진 컬렉션만으로 지면을 다 채울 수도 있겠지만 저만의 것으로 간직할게요.)

서울일지 2023년 6월~7월-성산동

이 수상한 공간은 뭘까요? BAR

사장님과 알바생으로 처음 만나 인연을 이어온, 친구이자 동료 작가 H와 제가 적당한 공간이죠.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하는 공간이자, 다른 작가들도 편히 찾아 시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나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놀러 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온갖 꿩꿩이름 품은 작업실인데요. 6월에 공간을 계약하고, ‘하고 싶은 건 (불법과 비윤리가 아니면) 다 해본다’라는 신념으로 여러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판 달고, 도장 파고, 사람들 모아 파티와 작품 경매도 하고요. 요새도 오픈 스튜디오나 수다 모임을 열기도 합니다. 어떤 권위나 뚜렷한 경계를 가지는 게 아닌, 여러 삶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작업하는 H와 제가 딱 맞는 공간을 만든 것 같아 기분 좋은 여름이었습니다.

서울일지 2023년 8월-창천동

누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을 때면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바로 ‘감자’인데요. 감자로 만든 거면 정말 뭐든 좋아해요. 제 수능 도시락도 찢 감자 세

틀이었거든요. 이런 제게 질렸다는 듯 혀를 차다가도 맥줏집에 가면 군말 없이 감자튀김을 시켜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제 대학 동기들입니다. 스무 살에 만나 질리도록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지만 여전히 해보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감튀에 맥주를 먹고,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당구(포켓볼)를 치러 갔습니다. 요새 부쩍 어른스러워진 동기들이지만 포켓볼을 치며 꺾 소리 지르고 깔깔 손뼉을 치다 보니 1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서울일지 2023년 9월-신사동

저와 같이 바보짓을 해주는 또 다른 친구들 중에는 중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시는 술이 맥주에서 소맥으로, 또 와인과 위스키로 계속 바뀌었죠. 뭉치는 곳 역시 동네 어딘가에서 제법 근사한 곳으로 변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변해가는 취향과 달리 여전히 여전한 것이 있었으니...서로의 바보짓을 지켜보며 즐겁다는 거죠. 가령 백스트릿보이즈(Backstreet

Boys)의 <I Want It That Way>를 떼창한다거나, 서로 택시비를 대줄 테니 집에 가지 말라고 붙잡거나, 썰렁한 농담과 그에 대한 타박을 주고받는 일들처럼요. 서로의 존재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 같아요. 언젠가 위스키를 얼음도 없이 퍽퍽 털어 넣는 어른이 되더라도 이런 바보짓은 멈추지 않았으면! 혼자 생각하곤 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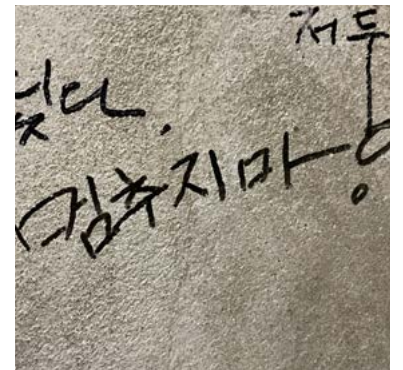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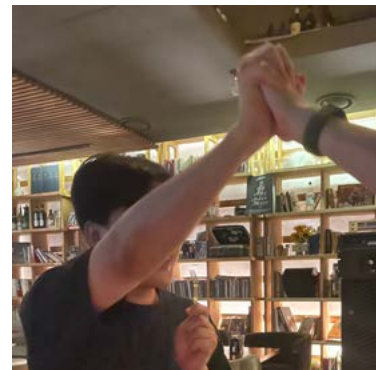


2023년 6-7월 성산동 ▲



2023년 8월 창천동 ▲

2023년 9월 신사동 ▼



하형

학생 때 무작정 상경했던 서울. 부푼 꿈을 안고 왔던 그때 서울은
신기한 것투성이였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많은 것이 익숙하게 느껴진다.
화려하고 멋진 삶 이면에 초라하고 별것 없는 세상이 공존하는 도시.
이곳에서 나는 균형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미디어 아티스트지만 디지털을 벗어나 서울의 현실을 느끼려
한다. 핸드폰을 꺼둔 채 지내는 하루엔 창문 밖 풍경, 산책하며 발견한
깊숙이 숨겨진 골목 등 그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주한다.
동시에 서울은 나에게 끊임없는 자극이다. 시각적인 자극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게 이 도시에서 열리는 수많은 전시, 멋진 자동차, 높게 올라가
빛나는 빌딩 모두가 영감이 된다. 매일 보는 남산타워마저도 내 작업의
오브제가 된다.

여행을 떠난 낯선 도시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있다. 때때로 이
도시의 나 역시 아무것도 본 적 없고,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낸다.



Butterc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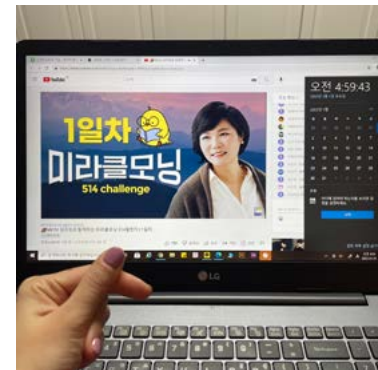
3D 아티스트로 살며 깨달은 사실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행복하다는 것.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며 성장한다는 것. 처음 작업을 시작했을 땐 한동안 사람들의 반응이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인 만큼 열심히 했으니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타격이 컸다. 좌절 그 자체였다.

그때 우연히 보게 된 짐 캐리의 영상이 있다. 그는 “당신이 싫어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으니 적어도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했다. 이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줬다.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기까지 하면 다시 일어설 용기 따윈 생기지 않을 거야’. 이에 더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실패하면 그래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었다.

놀랍게도 그 이후 조금씩 좋은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이 기세를 몰아 주변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웠다. 우선 작가명을 내가 좋아하는 꽃이자 나의 탄생화인 ‘미나리아재비’의 영명 ‘buttercup’ 으로 정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구름, 꽃, 디저트, 핑크와 보라색 등 내가 좋아하는 요소를 작품에 넣었다. 이외에도 아침에 이부자리 개키기, 정리하기, 명상, 독서를 하며 스스로를 응원했다.



2021-2023년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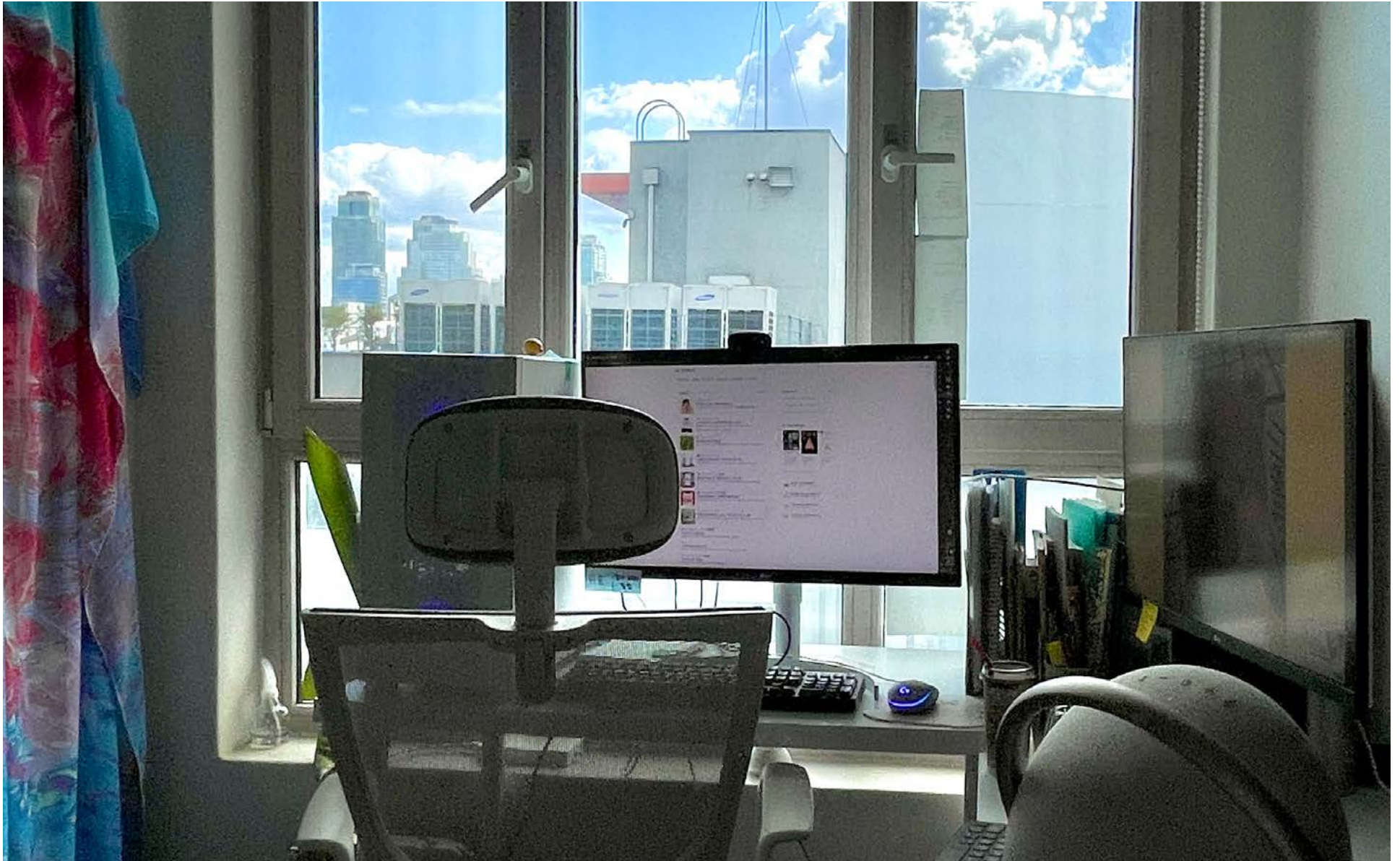
여기에 아침을 깨우고, 잠 자기 전 치르는 나만의 의식이 있다. 아래는 그 목록이다.

- 새벽 5시 기상
- 목표 시각화
- 아침 독서
- 1시간 운동
- 감사 일기
- 음악 감상

아침에 읽는 책은 자기 계발서가 대부분 이다. 혹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분야의 전문 서적도 있다. 최근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는다. 이후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작업한다. 음악은 내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것 중 하나다. 요즘은 'Doja Cat - Paint The Town Red'와 크리스마스 재즈 플레이리스트에 꽂혀 종일 듣고 있다. 자기 전에는 감사 일기를 쓴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재 내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닌, 사소하나마 내가 해낸 것들, 나에게 생긴 즐거운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3D 아티스트로 지낸 지 3년 차.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상기한다. 최근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작업실에 산타 모양의 전구를 달았다. 작업을 하러 가는 길이 너무 즐겁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서울의 아침은 몹시 쌀쌀하다.
한 달 전엔 햇볕이 무척 뜨거웠는데
말이다. 나는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서울의 곳곳을 오갈
때마다, 혹은 음악을 들을 때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부유한다.

이적, 〈이십년이 지난 뒤〉

일분일초 실 틈 없이 흘러가 내일의
모습조차 알 수 없는 나의 20년
후는 어떨까. 여전히 맞지 않는 옷을
욱여넣고 있을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슨 없는 축하를 전할
수 있을까. 여전히 건강할까.

기린, 〈BUS ANES〉

요즘 내 일상은 ‘서울살이’가 아닌
‘버스살이’다. 버스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버스 좌석은 내게
안락한 침대이자, 영감의 근원,
하루를 마감하는 일기장이다. 어제
저녁엔 한남대교를 건너 반대쪽
헤드라이트의 불빛을 흘려보내며
‘모든 이의 삶의 목표인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생각했다. 다들
알아서 열심히 살고 있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나부터
잘해야겠다.

Cuco, 〈Lo Que Siento〉

여행 가고 싶다. 아니, 사실 서울을
떠나고 싶다. 나는 서울을 사랑한다.
내가 자란 곳이기도 하고……하지만
이 모든 이유를 떠나 각자의 방향을
향해 질주하는 이들의 에너지가
모인 이 도시는 내게도 활력을 준다.
활력을 주다 못해 나를 뜨겁게 한다.
하지만 가끔 서울이 낯설 때가 있다.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친구의 도전이
차갑게 식어버렸을 때, 붕어빵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일 때. 이 노래는
도쿄에서 우연히 듣고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 노래를 다시 찾아 반가운
마음에 남기는 글.

다큐멘터리

나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
그중 며칠 전 시청한 다큐가 내 머리를 탁 쳤다. 서울 강남에서 만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강남이 없으면 한국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남엔 수많은 기업, 뜨거운 학구열, 휘황찬란한 유흥가가 있다. 이곳에서 지내는 이들에게 서울이란 내가 생각했던 낭만적인 도시와 거리가 멀었다. 종일 1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밤잠도 미룬 채 공부하는 학생과, 일자리를 얻기 위해 부산에서 상경한 남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대구에서 올라온 배달 기사까지. 그들을 보며 지금껏 내가 해왔던 노력이라는 게 부끄러웠다. 그들이 가진 목표는 반짝반짝 빛나 보였다. 나 역시 목표가 빛나는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Hwabyung'

이건 HERA C.CREW로서 처음 선보인 작업이다. 나는 콜라주 아트를 만드는 minraindali지만 동시에 여러 기업의 책을 만드는 편집 디자이너기도 하다. 말하자면 본래 직업이 아닌 또 다른 정체성을 의미하는 '부캐'를 가진 셈이다. 여러 방송에서 부캐를 가진 사람들을 멋지게 조명한 것과 달리 나의 부캐 생활은 형편 없다. 흥미도 없는 편집 디자인을 계속하는 일은 고역이다. 그럼에도 작가로서만 살 때보다 훨씬 여유롭다. 캔버스와 재료를 구매할 때의 부담을 덜고, 예쁜 액자를 살 수 있고, 몸은 고되도 내 작품이 빛깔이 고와진 것을 보면 힘들었던 것도 잊는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 맞지도,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챙겨 입는 중이다. 언젠가 나라는 꽃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길 기대하며 출근한다.

'Next chapter'

이건 HERA C.CREW로서 두 번째로 선보인 작업이다. 서울에 살며 느낀 점이 있다. 세상을 등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결코 힘든 티를 내지 않는다. 모두가 "나 괜찮아" 혹은 "할만해"라며 입을 꼭 다문다. 모두가 버티면서 이기기보단 자신을 옥죄는 '센 척'을 잠시나마 내려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든 문장에는 숨표가 있는 법이니까.



Hwabyu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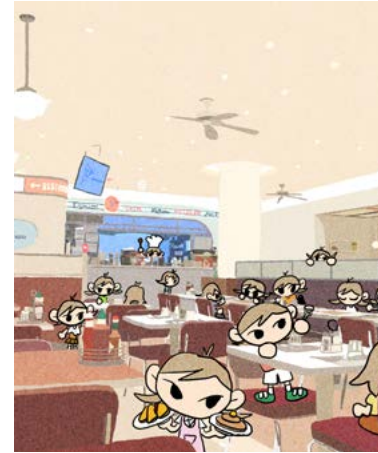
New chapter ▼



Miri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선호한다. 어떻게 보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인지 지금껏 수차례 서울을 떠났다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권태롭게 느꼈던 서울의 새로운 면면을 발견하기도 하고, 외려 실망할 때도 있다. 이렇듯 반복의 반복을 거처온 결과 서울은 내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서울 어디에나 존재한다. 모두가 바쁜 아침 시간의 지하철 안, 작품을 잔뜩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탄 엘리베이터, 내가 살던 잠실 어딘가의 전봇대, 이태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팬케이크 집 등…… 내년, 3년 후, 13년 후 이보다 더 먼 시점 언젠가. 나는 어디에서 내 온기를 남기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올 것이다. 언제까지나 그랬듯.





SILVER JO

반갑습니다. 글쓰기라는 것을 하나의 인생으로 규정한다면 제 고향은 여기, '에세이 드라이브'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물도 없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름 모를 당신은 제 글쓰기 인생에 다시 없을 귀한 고향 친구입니다.

고향 친구가 대개 그렇습니다. 험난한 세상 속 제각기 바쁘게 다른 길을 걷다가도 서로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득히 어린 시절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부터 드러낼 글은 여태껏 쓴 글 중 가장 짧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글의 뻘뻘한 모습이 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간 글 모양과 제법 달라 귀여워 보이니까요 합니다. 이 글을 기꺼이 읽어주는 당신도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제 글을 바라봐 주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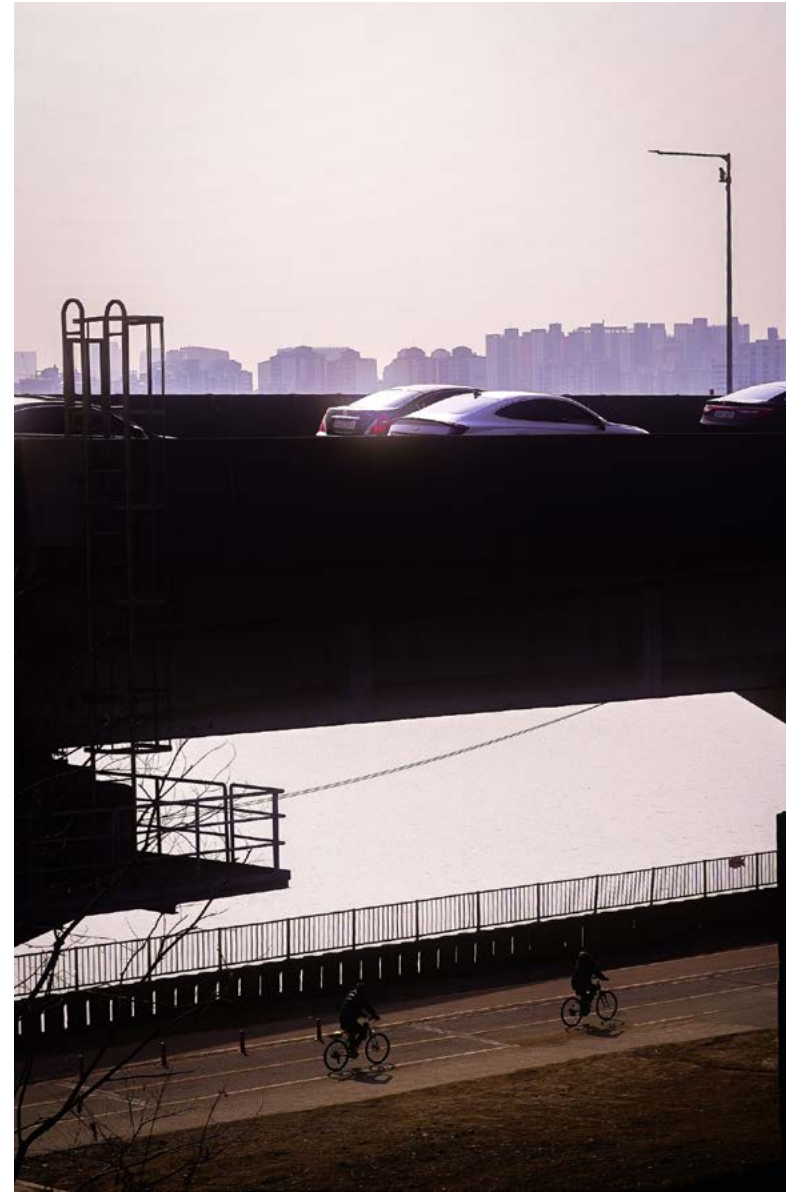


느린 걸음

앞서 걷는 아주머니의 걸음걸이가 세상 느립니다. 느린 걸음에 시간을 붙이니 1초에 한걸음 꼴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오르막길, 양손 무겁게 들려 있는 검은 봉다리 속 뼈쪽 고개를 내민 대파 한 단. 이들이 그녀 느린 걸음의 타당함을 강하게 변론합니다. 앞질러 가지 않았습니니다. 뒤에 딱 붙어 재촉하지도 않았고요. 그녀 뒤에서 발맞춰 걸어봅니다. 아니, 걸어 올라가 봅니다. 한 쪽 한 쪽 느린 보폭으로 올라가니 평소 그렇게 싫어하는 오르막길이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다 못해 즐겁기까지 합니다.

천천히 올라가며 길가 따라 자리한 가게와 사무실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다들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꼼꼼하게 꽃줄기를 다듬고 있고요, 어떤 이는 밖을 찬찬히 살펴보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정신을 차리니 앞서 걸던 그녀가 저만치 멀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거리가 벌어지지 않게 속도를 내봅니다. 그렇게 한참을 엇비슷하게 올라가던 중 그녀는 이름 모를 건물로 쓰윽 들어가 버립니다. 제 앞에서 천천히 걸어 줄 이는 없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보폭을 떠올리며 힘내 봅니다. 땅을 내딛고 올라가는 힘이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반짝이는 길 위로 보이는

날이 따뜻해지니 산책길 옆으로
노오란 민들레가 폈다. 언제 이렇게
홀쩍 영글었는지 이미 머리가 하얗게
희어 흩씨를 뿌리는 민들레도 있다.

나이 지긋한 여성들이 삼삼오오
쭈그려 앉아 민들레를 캔다. 옆에
서서 가만가만 지켜본다. 그녀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히 힘을 쥐
가며 민들레 잎을 뽑는다.

흙바닥을 뚫고 나온 하얀
뿌리는 초록 이파리보다 몇 곱절은
더 길어 보인다. 흙을 탈탈 털어보니
그 자태가 생각보다 더욱 희고 곧다.
몇 주 새 자란 민들레도 이렇게
야무진 뿌리를 내리는데, 밑알을
품은 우리의 뿌리는 지하 어디쯤
내려가 있을까. 그럼에도 시들지
않고 곳곳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땅 아래 어딘가 굳건한 뿌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제 막 걸음마를 익힌 듯한
아이가 손짓하며 다가온다. 아마
내 앞에 앉아있는 씨머와 눈이
마주쳐서일 테다. 뒤로는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있다. 아이가
넘어질세라 필사적으로 허리를

굽혀가며 진땀을 흘리고 있다.

여성은 나와 씨머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한다.

“연지야. 멍멍이는 갑자기 만지는 거
싫어해요. 보기만 하는 거야.”

연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가
보다. 이제 막 뒤통뒤통 걷는 걸 보아
여성의 말을 이해할 턱이 없다. 그냥
다가온다. 성큼성큼.

내 앞까지 왔다. 잠시
주춤하더니 고사리 같은 손을 씨머
몸 위로 툭 올린다. 씨머는 흠칫
놀랐지만 짓지도, 몸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아이는 몇 번 만져보더니
흥미가 떨어졌는지 고개를 휙 돌려
가버린다. 여성은 가볍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허리 숙여 아이의
짧은 보폭에 맞춰 줄줄 따른다.
자라나는 아이와 굽어가는 여성은
잘 맞춰진 퍼즐 같다. 여성이 허리
굽혀 남긴 찰나의 흔적이 누구의
발자국보다 질다.



길 위로 반짝임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지난밤 내린
비 때문인지, 적당히 맞춰 걷는
이들의 보폭 덕분인지. 적어도 나는
어제보다 몇 움큼 덜어지고 몇 줌
더 뿌리 내렸으니 이리나저리나
상관없다.

빠-방전입니다

‘빠-’

오늘 밤 보드카와 함께 마실 탄산수가 없어져 버렸다. 검정 선과 흰 선이 겹겹이 줄지어 있는 곳에 붉은빛을 쬐다. 1,800원이다.

‘바코드 리더기를 제 이마에 대면 뭐라고 나올까요?’

아르바이트하는 분께 시답지 않은 농담을 던지려다 꼭 참았다. 다행이다. 이상한 구석도 그렇다고 특별히 좋은 구석도 없는 그런 적당한 애로 보였겠지.

적당하다.

맛있는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걸 사도 조금의 저축까지 할 수 있다. 심심할 때 전화 한 통이면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여러 명 있다. 24시간 함께하는 반려견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와 줄 가족도 있다. 그렇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저 기계를 이마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말하겠지.

‘빠-방전입니다.’

방전이다.

있는 힘껏 몸을 웅크려도 불안하다. 머릿속에 가득 담긴 생각들은 표면 장력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빙판길 위를 넘어지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준 탓에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렸다. 밤이 오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주글주글해한 내 몸을 침대 위에 던진다. 방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간단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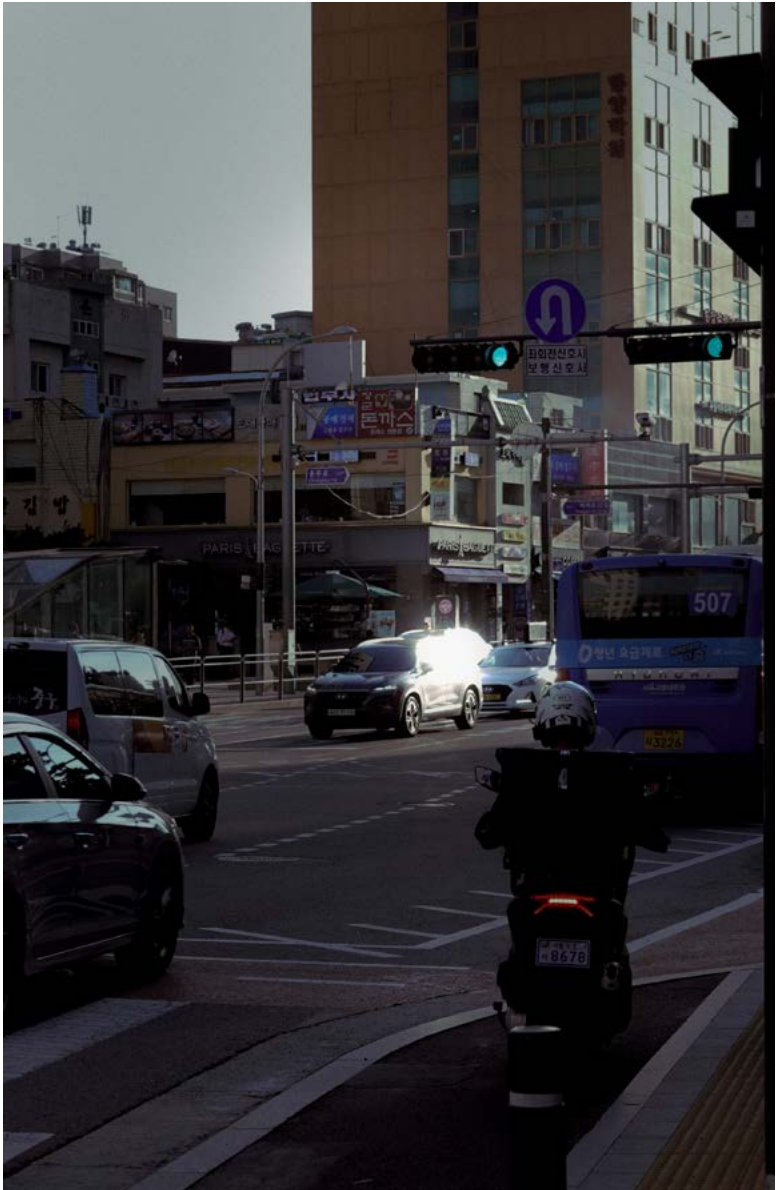
간단하다.

우리가 매일 쓰는 휴대전화도, 구석에 처박힌 체중계도, 온갖 것들을 집어삼키는 청소기도 쓰다 보면 결국에는 방전되지 않나. 방전되면 다시 충전하면 그만이다. 방전된 상태에 매달려 울고 불고 야단일 게 아니라 충전기를 꽂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이마에

꽂고 충전이 될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일 테지.

보인다.

나는 급류를 거슬러 오르는 멋진 연어가 아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만들어 낸 순류 덕분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바위같이 단단한 사람이 되지 못할 바에는, 파도를 타고 세상 곳곳을 유영하는 작은 모래알이 되면 된다는 것이. 겨우내 짱짱 얼었던 한강의 흙길에는 아기 새싹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는 것이. 동네 오래된 나무에 가득 앉아있는 새들의 지저귀는 저릿하기보다 정겹다는 것이. 연말에 받은 뿌리 없는 꽃줄기는 용케 살아남아 아직도 제 미모를 뽐내고 있다는 것이. 잘 보인다.



파란 꽃무늬 수영복을 입은 그녀

몇 달째 왼쪽 무릎 관절이 저릿하게 아프다. 오리발을 끼면 통증이 심해져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매주 화요일마다 나이 지긋한 어머니들이 계시는 수영 레일에 들어가 수업을 받는 것이다.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6시 23분. 어김없이 어머니 부대를 이끌며 용감하게 헤엄치던 날이었다. 내 뒤를 따라 들어온 꽃송이 가득 그려진 파란 수영복을 입은 그녀가 던진 말.

“아휴. 뒤에서 보는데 어찌나 살결이 예쁘던지. 몸이 너무 예쁘네. 나도 어릴 때는 이랬지.”

평소였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무례한 말 아니냐며 이마에 내 천(川) 자를 그리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을 텐데, 가쁜 숨결과 함께 그녀가 내뿜은 말에 그리움이 가득 담겨있어 눈 밑이 살짝 핑 돌았다.

마포구에 사는 4년 동안 해마다 반년 정도 수영 수업을 듣고 있다. 피엄피엄 수업에 올 때마다

내 살결이 예쁘다고 칭찬한 꽃무늬 수영복의 그녀는 항상 있었다. 그녀는 무릎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지시한 동작을 하지 않는다. 본인의 정확한 루틴으로 무릎 사이 키크판을 끼고 30분 남짓 열심히 자유형을 하곤 중간에 훌연히 샤워장으로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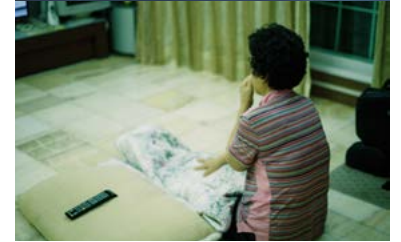
그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건 4년 만에 처음이다.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당연히. 뭐라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다 “에이, 어머니도 예쁘신데요. 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피부가 제일 좋아요.”라고 맞받아쳤다. 애써 던진 대답이 무색하게 “아니야. 난 이제 다 늙었는데 뭐”라고는 다시 키크판을 가랑이 사이에 끼고 앞질러 출발해 버린다. 피부가 제일 좋아 보였던 건 사실이었는데. 찻. 그녀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을 남겨본다.

그렇습니다. 저는 적당히 살이 차오른 부드럽고 뽀얀 살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요. 저보다 몇 곱절 오래 자리 잡았을 수평과 수직, 소외와 범람, 축적과 추적이 견고하게 얽히고설킨 당신 근육을 닦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손으로 물길을 수백 번 가를 동안, 저는 세찬 발길질 열댓 번이면 길게 늘어선 수영장 레일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몇 년을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수영복을 입고 같은 물장구를 치며 만들어 내는 간결하고 반듯한 당신 물결을 닦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첩첩 쌓아온 과거보다 할 것도, 볼 것도, 들을 것도 훨씬 많은 지금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토르소 위 파아란 들판 위로 이름 모를 꽃들 가득 핀 당신 모습이 왜 더 고결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저 주름진 살결로 계속 물장구 쳐주세요. 그래야 당신을 닦아 주름져 갈 테니까요.



NOW: 예술가들의
시대 사용 방법

Boat
서수현
선리
OLOHOYO
Studio ChaCha



(우측부터)
 ∴ Boat (보트)
 ∴ 서수현
 ∴ 선리
 ∴ OLOHOYO (올로호요)
 ∴ Studio ChaCha (스튜디오 차차)

숨 실 틈 없이 새로운 자극이 쏟아지는 세상. 이 자극의 유효기간은 길지 않아 어제 새로웠던 것이 오늘 낡고 지루한 것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 모인 젊은 작가 5인은 시대를 두려워하기보다 외려 자신의 작업을 선보이는 무대로 적극 활용한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주제나 소재를 깊게 탐구하는 것이 급변하는 이 시대를 사용하는 방법인 것처럼.

어릴 때 봤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떠오르는 보트의 그림, 알록달록한 털과 실로 엮은 리그와 생동감 넘치는 가구를 선보이는 서수현, 더 프리뷰 2023에서 육조가 놓인 화장실 작품을 선보이며 주목받은 선리, 숨, 원단, 종이, 나무 등 소재의 한계 없이 위트 있는 입체 작품을 만드는 올로호요, 유리의 투명함을 이용한 아름다운 오브제를 창작하는 스튜디오 차차까지. 인스타그램 피드를 짝 채운 이들의 재기발랄한 작업은 바빠 달리던 이 시대도 잠시 멈춰 흥미롭게 지켜볼 법하다.

❶ 당신이 예술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트 :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내가 그린 그림에는 즐거움, 욕망, 평정심과 두려움 등 번덕스러운 감정을 가진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는 작가인 나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수현 : 길을 걷다 발견한 작은 풀잎 등. 일상의 사소한 장면은 사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우울했던 기분을 단숨에 바꾸거나 고민하던 일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내겐 이러한 순간을 담은 작품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선리 : 나는 회복과 완화에 관심이 많다. 이에 '목욕'이라는 일상적 행위를 치유의 수단으로 정의하고,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회복의 공간으로 표현하며 우리 생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말하고 있다.

올로호요 : 현대 사회 속 다양한 인간이 작업의 핵심이다. 작업을 통해 각기 다른 배경에서 살아온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현대적 매체 및 기술을 활용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스튜디오 차차 : 소재를 탐구하며 발생하는 영감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를 주요 매체로 여러 기법을 적용하며 새로운 미감을 보여주는 작업 중이다.

❷ 당신이 생각하는 예술의 범주는?

보트 : 모든 것은 예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 재미있는 예시가 있다. 내가 처방받은 알약과 데미안 허스트의 알약(작품명 : Pharmacy)은 물질적으로 같다. 하지만 삶과 죽음을 고찰하게 하는 데미안 허스트의 알약만이 예술로 인정받는다.

서수현 : 작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 상품이 된 물건이라도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 창의성이 담겼다면 그것 역시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예술의 범주는 창작자의 의도와 더불어 관람자나 평가자의 감성과, 인식에 달린 게 아닐까.

선리 : 작가가 영감을 얻는 시점부터 작품을 제작 및 발표하고, 관람자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과정이 예술이라 생각한다.

올로호요 : 작가가 만들어 내는 모든 것. 하지만 작가가 예술이라 주장하더라도 관람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술이 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스튜디오 차차 :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모든 것.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예술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③ 당신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특징은?

보트 : 물질적으로 풍족한 현시대 인류가 추구하는 것은 'FUN'이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리기를 좋아했다. 이때 느꼈던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내 작업에 캐릭터를 등장시키게 된 것 같다. 참고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톰과 제리', '짱구는 못말려'다.

서수현 : 수많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엇이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 다양한 창작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과도한 정보를 흡수하며 자칫 개성을 잃을 수도 있다. 때문에 나는 작업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믿음 아래 여타 이미지를 참고하지 않는다.

선리 : 많은 사람이 안정적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급변하고 치열한 현대 사회 속, 이를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매사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유지할 방법을 작품에 담고자 한다.

올로호요 : 지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의 삶과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 이러한 변화가 작가들에게 새로운 상상과 영감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스튜디오 차차 : 인스타그램 계정에 작업을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강렬한 기술이나 연출을 적용한 작업도 많이 보인다.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물리적 제약 없이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쏟아지는 작업 틈에서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기 쉽지만은 않다.



④ 그렇다면
이 시대의 '예술가'란?

보트 : 온라인 채널이 발달함에 따라 작품 하나로 승부를 겨루기엔 어려운 시대다. 작가는 작업을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가적 매력을 드러내는 육각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

서수현 : 모든 이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시대. 그렇기에 오히려 진정한 예술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

선리 :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작품이 등장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술가들이 관람자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시대다.

올로호요 :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리와 비영리의 구별 없이 미학을 표현하는 존재. 이에 더해 예술가는 단순한 창작을 넘어 현대 문화 및 기술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튜디오 차차 : 앞서 말했듯 새로운 영감을 주는 모든 이가 예술가라 생각한다.





⑤ 당신의 작업이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하나?

보트 : 예술사를 살펴보면 사진, 실크스크린 등의 매체 발명 시점이 기록되어 있다. 릴스를 자주 만드는 나 역시 시대 현상을 기록하는 역사의 일부다. 100년 뒤 내 릴스가 '쇼츠 예시1'로 등장할지 누가 알겠는가.

서수현 : 마음에 작은 요동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싶다. 내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을 본 누군가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던 유년 시절의 행복했던 순간이 떠올랐다”는 말을 한 적 있는데 외려 내가 큰 힘을 얻었다.

선리 : 내 작업을 본 관람자가 '사유하는 경험'을 가진다면 좋겠다. 내 작업을 본 관람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상을 더 해 사유의 폭을 확장할 때, 그리고 그 순간을 작가인 나와 공유할 때 희열을 느낀다.

올로호요 : 예술은 복잡다단한 현시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내 작업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서로 다른 개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접점이자 도구였으면 한다.

스튜디오 차차 : 나는 기능적이면서 동시에 예술적인, 즉 경계에 놓인 작업에 관심이 많다. 이는 나의 예술이 거창한 시대적 의미를 지니기보다 나의 만족과 호기심에 비롯하기 때문일 테다. 나의 작업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상상력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한다 생각한다.

⑥ 마지막.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한 예술가란?

보트 : 어렵다. 단계별로 설명하자면...첫 번째. 아무런 방해 없이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 세 번째. 모두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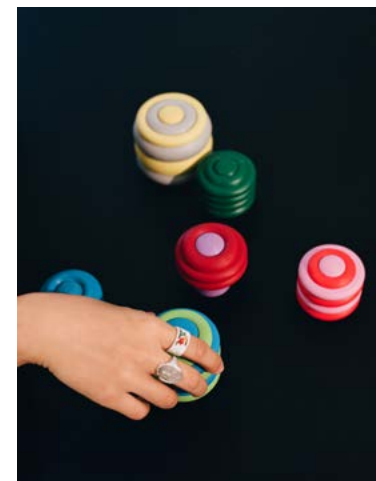
서수현 : 꾸준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

선리 : 누군가 오랜 시간 마음속에 간직할 작품을 만드는 사람.

올로호요 : 탐구 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차세대에 영감을 주는 사람.

스튜디오 차차 :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사람. 서툴고 어색한
표현일지라도 꾸준히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로 서사를 완성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HERA

SEOUL

발행 HERA
편집 9AND
에디터 신은별
C.CREW Amira, Boat, Buttercup, Hahyung, Halfpy,
Joung Haekang, Kwon Keunsoo, Miri,
Mingyes, Minraindali, Olohoyo, Silver Jo,
Studio Chacha, Suh Suhyun, Sun Lee

HERA.COM

HERE
NOW
MYSELF

HERE



지금 당신이 있는 여기,
어떤 모습인가요?



시간은 공기에 흩어져 있어 만지거나 볼 수가 없다. 나의 오래된 버릇 중 하나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고 어디쯤 왔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이다. 이 치약을 다 쓰기까지 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새로운 일들이 있을까,

같은 맥락에서 손톱도 마찬가지이다. 끊임없이 자라고 미련 없이 잘라내는 것, 그 어떤 손톱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 힘들었을 때 잘라 냈을 테고 어떤 손톱은 설레는 마음으로 잘라 냈을 것이다, 어느새 또 자란 손톱들을 보며, 그 많은 손톱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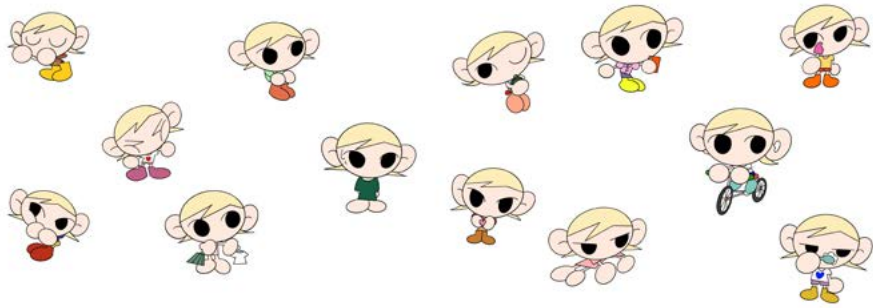
내가 있는 이곳은 남과 비교되는 삶,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누구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꿈을 마음껏 써 내려갈 수 있길 바라며 그린
그림이다. 결과에 따라서가 아닌 도전하고
탐험하는 과정도 충분히 멋진 모습으로 인식 되기
위해 모두 주저하지 말고 다 같이 뛰든 해봅시다!
고민보단 '고(GO)'를 외칩시다!



나의 현재의 모습을 담은 작업이다. 사랑하는 일에 대한 열망을 이루기 위해 돈과 시간을 굴리고 있는 모습은 마치 저글링을 하고 있는 모습 같달까!
누가 초시계를 세고 있는 것도 아닌데 불 붙은 폭탄이 곧 발등에 떨어질 것 마냥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당황스럽지만 그럼에도 은근히 즐거운(?) 나의 현재를 표현했다.



매일 창문 넘어 익숙하게 빛나던 남산 타워가
유리로 변한다면 이런 모습 일까요?



“지금 당신이 있는 여기,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나라와 지역을 오가면서요. 그리고 어느새 눈을 떠보니, 제가 어디에 있든 간에 같은 손짓, 발짓으로 그곳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곳으로 그리고 다른 속도로 걷는 이들과 매일 누군가의 장난처럼 마주치며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떤 배경 색을 갖고 있든, 다양한 색으로 그에 맞는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맞지 않는 조각들로
화병을 꾸미지 마세요.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색하듯, 맞지 않는 화병의
조각들을 억지로 맞추면 물이 빠져 내면의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현실을 직면하고 다른 화병의 조각을
끼워 넣는 모습을 거울 속의 저를 통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무탈한 날들을
보내기 위해 계속해서 끼워 넣고 있더라고요.
언제쯤 물이 없어져 꽃이 시들어 버릴지..



나의 '엄마'는 일반적인 '엄마'는 아니다. 담아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다큐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여행이 가고 싶으면 혼자 제 3국으로 홀라당 떠나버리는 그녀였다. 내 육신은 생물학적 요소들이 만들어 낸 피조물이라면 그 안에 들끓는 생명력을 넣은 건 엄마의 역할이 9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다.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친구의 물건을 훔쳐 크게 혼난 적이 있다. 엄마가 나에게 회초리를 든 처음이자 마지막 체벌이었다. 그 후 어느 주말, 엄마가 부엌에서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니 부엌 상부장 아래 붙어있던 얇은 라디오 박스에서 “다음 사연입니다. 광주에 사는 신경희 님의 편지인데요.”라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신경희. 엄마 이름이다. '광주에 사는 신경희'면 엄마 인 게 분명했다. DJ 김창렬의 목소리로 엄마가 보낸 편지가 울어졌다. “은아. 엄마는 은이가 싫어서 혼낸 게 아니야. 엄마는 은이가 바르고 곧은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항상 사랑한다.”라는 말로 끝난 편지였다. 평소에 하지 않는 낮간지러운 말 때문에 고마운 대답도 따뜻한 포옹도 못 한 채 멀뚱히 서서 고장 난 표정을 지으며 웃고 있는 엄마를 쳐다만 봤다. 그래도 여전히 그날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강한 주황빛 햇살이 두 눈을 꼭 감아도 선명하고

따뜻하게 그려진다. 그렇게 엄마는 인생의 절반가량을 그녀만의 방식으로 당신이 가진 쉬이 식지 않는 마음을 딸에게 끊임없이 일러주었다.

글을 써 내려가며 흠뻑러져 있던 우리가 함께한 낙하와 비상을 모아 보니 제법 두꺼운 종이책이 되어있다. 어린 나를 대신해 써 준 촘촘한 서문 덕분에 지금 나는 별 가득한 밤하늘처럼 세상을 반짝이게 볼 수 있고, 높은 온도의 사랑을 할 수 있고, 정해진 것 없이 일상을 힘껏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저 기승전결 없는 나와 엄마의 다음 페이지는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기를 바랄 뿐이다.

Here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작업은 결국 엄마와 나를 이어주는 작업이 되었다.



꿈이 현실일 수도 현실이 꿈일 수도. 서울을 배경으로 한 주인공의 모험은 단순한 외출을 넘어서 현실과 꿈이 어우러져 열어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주인공의 모험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으로 상상과 현실의 교차로에서 자유롭게 모험을 떠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현실을 넘어선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Here' 지금 이곳, 현재의 모습을 니콜라 부리요의 '현재는 미래에서 빌려온 시간'이라는 이론을 통해 전개한 영상 작업물이다.

'현재'라는 불확실하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선을 '호텔'이라는 임시적, 제한적 거주의 공간으로써 표현하였다. 우리의 물리적 '실체'와 정신적, 형이상학적 '존재'의 대비를 통해 이곳, 우리들이 현실을 향유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틈 작업은 어느 대지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고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위치는 명확한 것들이 중첩된
사이에 존재하는 '틈'과 같았다. 이 틈 사이에는
무엇이 숨어있을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식물이나
버섯 등의 새로운 생명이 우연히 피어나기도 한다.

나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불안감과
동시에 피어나는 생명력을 느끼며, 틈 속의 나를
온전히 포용하기로 결심했다.



일상 속의 묵묵 공간을 신체의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회복의 공간으로 재구성합니다.
현재의 상태에 몰입함으로써 회복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순간 'HERE', 당신에게 이러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SIGN]은 현대 사회 안에서 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고유성을 담고자 했다. 유리 레이어를 겹쳐 표현한 이 [SIGN]은 나만의 시각과 감성을 시각화한 것으로 현대 사회의 변화와 다양성을 대변하면서도 사회 속에서 나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이 작은 표식은 사회 안에서 내 존재를 상기 시켜줌과 동시에 타인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나의 '여기'가 그림자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햇빛 속에 달음박질할 때, 나는 달빛에 더듬더듬 멈춰 있는 것 같던 날들이요. 멀고 희미한 달을 쳐다보며 지금, 여기보다 그 달 뒤의 이세계, 어떤 별천지를 꿈꾸기도 했어요.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달 뒤에 간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곳에도 대단한 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달 뒤편은 상냥한 목소리로 말해줄 것 같습니다. 어두워도 잠들지 않고 달 뒤를 궁금해하던 그 마음이 참 단단하다고, 새로운 '여기'가 이미 네 안에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달 뒤와 우리의 '여기'는 서로의 환한 백야가 될 것만 같아요.



눈에서 포개진 잎이나 꽃잎이 펼쳐지는 모양. 찰스 다윈의 식물 운동의 힘에 따르면 식물의 모든 부분의 공통된 일종의 움직임이 발견되는데, 신장하는 식물의 회전성 즉 식물 장기의 구부러진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한다. 식물의 끝에 원형의 움직임을 만드는 과정(원형화)은 평평한 잎과 꽃잎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표면의 양쪽이 동일하지 않은 성장으로 인해 발생되며 일종의 균형 맞추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 자전하는 식물의 짝은 진동을 포함하고 증폭하는 동시에 탄성이 진동의 시작을 결정한다. 결국 짝이 팽창함에 따라 잎의 내부 표면에서 성장이 더 빨라져서 짝이 열리고 잎이 평평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삶 또한 우연과 필연이라는 원형 순환 안에서 자기 조직화를 통해 실재적 힘을 갖는다. 어떤 탄성의 순간이 진동의 시작을 결정하며 지속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무한한 원형 운동으로 확장된다. 이 같은 양상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유유히 회전하며 우아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부유하는 성장의 탄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진동 상태로 전환되고 개화를 통해 성숙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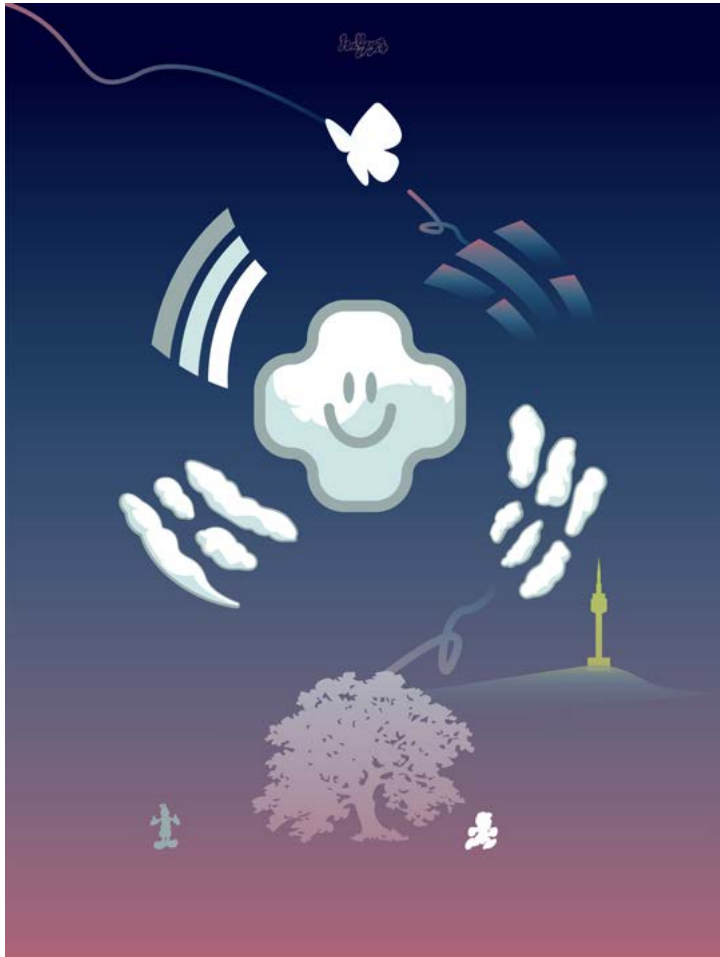
서울은 나에게 어떤 곳이자 의미일까?

나에게 서울은 꿈과 현실이 공존하는 곳이다.
화려하고 웅장한 창밖의 서울과 작업실 안에
덩그러니 있는 '나'와 컴퓨터. 괴리감과 초라함에
현타가 세계 온다. 괜히 컴퓨터가 밟고 쳐다도
보기 싫은 마음에 꺼버리고 놀아보지만, 얼마 안
가 한숨을 푹 쉬고 결국 의자에 다시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컴퓨터를 켜다. 꽤나 자주 반복되는 나의
일상이다. 아직 나에게 서울은 이런 곳이 아닐까?
그래도 나는 서울이 좋고 오늘도 꿈을 좇는다.

NOW



과거에서 지금,
지금에서 미래



나비 효과라는 표현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봤을 것이다. 작은 변화가 뜻밖의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재해와 같은 예시와는 다르게 이 표현을 긍정적으로 풀어내려 했다.

과거,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림과 관련된 도구들이 내 곁을 항상 함께했던 것 같다. 낙서와 같이 무언가를 종이에 끄적이는 게 자연스레 습관이 되었고, 그림이라는 날갯짓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나의 모습을 과거의 날갯짓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과거의 나는 분명 지금의 나를 예측할 수 없었다. 현재의 나풀거림이 과거보다 더 힘이 있겠지만 보다 더 큰 변화를 과거를 상상하며 오늘도 나는 힘차게 날갯짓을 하면서 나풀거리고 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나와 내 그림을 위해서.



지금의 역경과 고난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파워퍼프걸로 패러디하여 작업했다. 히어로 캐시,
머시룸보이, 도리스의 모습을 감상해보자.

지금에서 미래로 앞을 향해 날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내 마음을 담고 있는 세 명의
친구를 소개하자면 두려움을 나타내는 고양이
캐시, 언제나 울고 있는 모습이지만 두려움에 맞서
전하는 용기 있는 고양이이다. (하도 놀라서 털이
항상 빠죽 서 있는 채로 굳어버렸지만) 평정심을
상징하는 버섯 머시룸 보이, 몸집은 작지만,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다.

당당함과 욕망을 보여주는 소녀 도리스, 얻고자
하는 것 앞에서는 작은 고난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원하는 길
쟁취한다.

이 세 명만 함께한다면 무적(?)이라구 후후..



향수병이 심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도
가기 싫어했던 중국을 언젠가부터 너무나도
그리워하며, 원망스럽던 애니고 기숙사 생활을
매일 밤 회상하기도 했다. 그렇게 과거에 빠져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엄마는 '언제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지 모르니, 어쨌든 지금은
너가 하고싶은 걸 해라.'라는 말을 해주셨고,
그제야 답답한 커튼을 걷어버린 기분이었다.
과거의 나는 미래가 될 수 있고, 미래의 나는
현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내가 다녀왔던
곳들을 배경으로 루프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루프 애니메이션을 통해 반복되지만 한결같은
나의 모습과, 과거 같지만 미래 혹은 현재가 될 수
있는 나의 상황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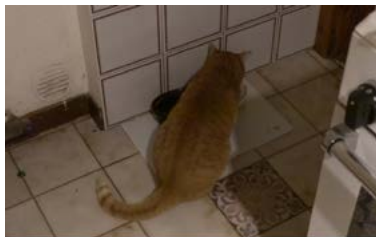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에 존재해야 하는지
매일 헛갈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과거에 남겨야 하며,
어떤 것들을 미래에 만들어야 할까?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 시간 속 의문이 가득한
생각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가 이세계라면?”
작품은 파운드 푸티지(Found footage)로 솟폼과
라노벨식 제목 형식을 차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미래에 대한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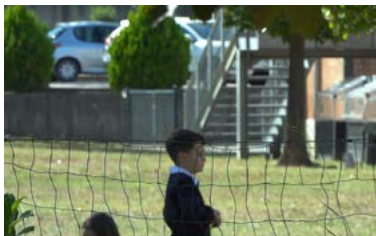
che a tracolla sulle spalle invece esili
커다란 여행가방처럼



che abbia mai passato
가장 즐거웠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Che cosa consiglieresti a Letizia?"
"마음있던 공간에 대해서 피드백해주시길 수 있나요?"



io sapevo il suo se- greto,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저 걸음뿐이던 이탈리아 중부 작은 마을. 이를 연속으로 간 젤라또가게 사장님은 나를 기억하고는 내 다리 상태를 걱정해 주고,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처음 본 한국인이 반가워 저 멀리서부터 손 흔들며 인사해 주는 그런 마을이다.

호스트 Letizia는 그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만나온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왔다. 온종일 걷다 해가 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면, 나는 식탁에 앉아 번역기를 켜고 그 책을 읽어나갔다.

인상 깊었던 Letizia의 글 일부를 그녀의 목소리로 담았고, 이곳을 거닐며 찍어둔 자투리 영상을 합쳐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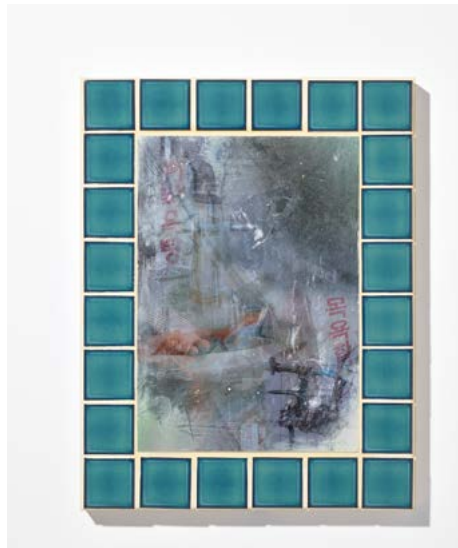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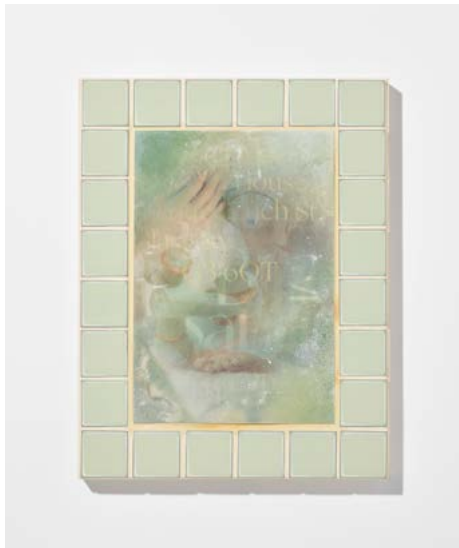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의 고통이 둔감해졌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릿해질 이곳에서의 기억이 여기 잠자코 남아있기를.



‘과거에서 지금, 지금에서 미래’라는 문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왔고 또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매번 떠오르는 답변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단순히 하트 모형으로는 사랑의 본질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격동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넘쳐흘러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작업에 담았어요.

열심히 사랑하며 살래요! 사랑하며 삽시다!

시간의 흐름 속,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들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작품 표면의
레이어처럼 교차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쌓인다.



과거의 경험들과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에서
마주친 묵욕 공간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은 강하게
충돌해 산산조각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가기도 한다.



우리의 지금은 언젠는 달고 또 쓰고, 다시는
떠올리기 싫어질 것 같기도 해. 그래도 쓴웃음
지으며 찍었던 별 생각 없는 몇 장의 사진도
익으면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새빨간 열매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 알차게 물들 지금과 흘러가는
것들에 3-2-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승인필: [Snap Shoot],
세븐틴(SEVENTEEN @saythename_17
) , <SEVENTEEN 3RD ALBUM 'An Ode'
(2019)>, 작사 WOOZI(SEVENTEEN),
BUMZU, Vernon(SEVENTEEN),
S.COUPS(SEVENTEEN), 민규(SEVENT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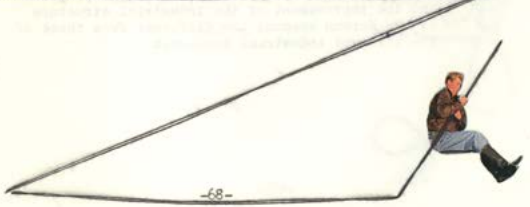


얼음은 시간과 변화의 무상함을 초월하여,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순간에서만 발견되는
아름다움을 담아낸다. 현재의 순간이
곧 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현재를
경험하고 향유하는 것을 강조한다.

Through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in the presently advanced nations started with indigenous agriculture, Korea began industrialization by means of foreign-financed industries, not her agriculture because Korea failed to mobilize her own accumulated capital resulting from land reformation for the purpose of industrialization. (Land reformation took place in the year previous to the Korean War.) Accordingly, inter-industrial interdependence is seen on both sides of demand and supply. That is, according to an inter-industrial analysis for the year 1960 and 1966, the manufacturing sector made use of ₩ 19 billion of domestic produced agricultural raw materials to produce ₩ 32 billion worth of raw materials to create an added value of ₩ 30 billion, while importing ₩ 7 billion worth of raw materials from abroad. (See Table 12)

The growth in industrial production will increase agricultural raw materials as noted in Table 12. If requirements for raw materials are domestically met, the same increase in industrial production will induce an increase in value added in agriculture, equivalent to 28 per cent of the above 10 per cent additional demand, as shown in Table 13.

In conclusion, balanced develop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will not only create the inter-industrial linkage effects of industrialization as stressed by the government, but also promote a balanced development of urban and rural areas. By creating inter-industrial and inter-regional demands, the scheduling of the industrial structure will b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a balanced growth of rural and urban areas.



예상대로 풀리기만 하면 좋겠지만 영김과 낚음, 풀림이 반복인 이 삶에서 구속되지 않게 뭐라도 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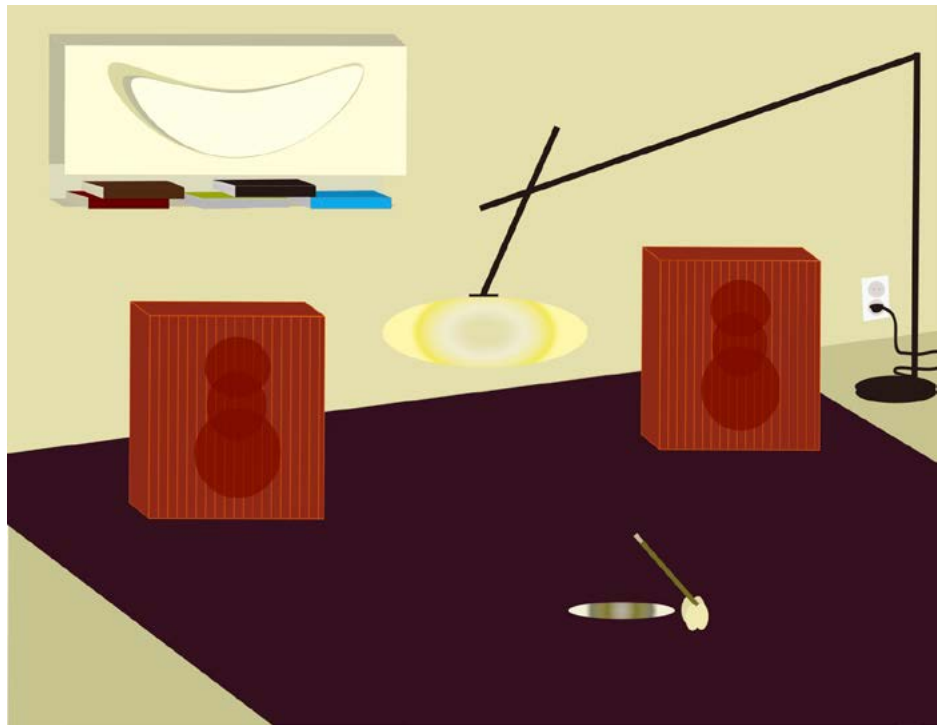


얼마 남지 않은 푸릇푸릇한 자연, 아쉬운 마음에 예쁘게 담아 기록해야지. <괴리> 작품에 이어 3D 작업을 하는 '나'를 대변하는 오브제 (컴퓨터)를 사용하여 시리즈로 풀어내고 있다. 1차 아트워크 HERE에서는 '서울'을 설레는 꿈과 차가운 현실이 공존하는 곳으로 해석하고, 서울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며 느끼는 꿈과 현실의 감정적 괴리감에 대해 그려냈다. NOW에서는 숨 가쁜 일상과 여러 잔여 감정에서 잠시 물러나 현재, 지금 자연의 아름다움이 주는 행복에 집중했다. 얼마 남지 않은 푸른 자연을 눈에 담으며 힐링하고 아쉬운 마음에 작품으로도 담아 기록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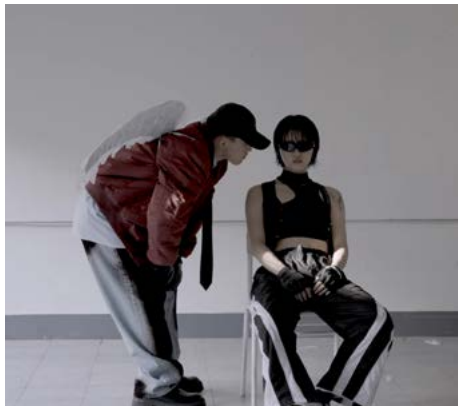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을 추종하는 내적 역동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해 보자. 우리는 감각적 인식과 유전 프로그램 너머의 현실을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순전히 인지적인 이해와 그것의 언어화일 것이다. 내 안에 존재하는 실제 힘으로, 응답한다면 그 대상은 대상이기를 멈춘다.



지금까지 작업한 거울 오브제들로 꾸며진 상상 속의 방, 과거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행하였던 정물화. 책. 시계 따위의 방 안에서 쓰는 물건들을 배합하여 그린 책가도와 유사하다.



현재, 'NOW'를 만끽하는 가장 강렬한 방법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로, 시위의 이미지로부터 출발한 작업입니다. 이에 더해 인간의 목소리에 화답하는 듯 하나 결국 무관심한 초월적 존재들, 누군가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외면당하는 개인들.

그 속에서 구원은 내면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형태로써만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MYSELF



나에게 줄 수 있는
'나다움'



Me Myself and I 라는 문장에서 앞 글자 Me 를 Be 로 바꿔 내 자신이 되자는 굳은 다짐을 보여준다. 세상 속 본인을 가로 막는 장애물과 맞서 싸우다 보면 실패를 경험해 두려움에 봉착 할 때가 있다. 두려움에 눌리더라도 언젠간 다시 일어나도록 스스로를 북돋우며 용기를 얻는다. 용기를 통해 다시 도전을 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가장 중요한 자신감을 얻는다. 자신감은 힘든 시간을 이겨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으면 긍정의 힘이 나를 둘러싸고 이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견고하게 만들어진 무기와 갑옷이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그걸 곧 '나'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처음에는 위태롭게 쌓이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빈틈에 낙엽과 흙 바람이 채워주고 또
비를 맞으며 그렇게 조금씩 단단해지는 거겠지.
산책하며 발견하는 크고 작은 돌탑들은 사람들의
소원이 모여 산이 태어나는 과정.



어릴 적부터 나는 참 평범했다. 타인에게 쉽게
영향받았고 매번 좋아하는 것이 달라졌다. 작가가
되면서 평범함은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 나를
숨기고 그 위로 다른 색깔을 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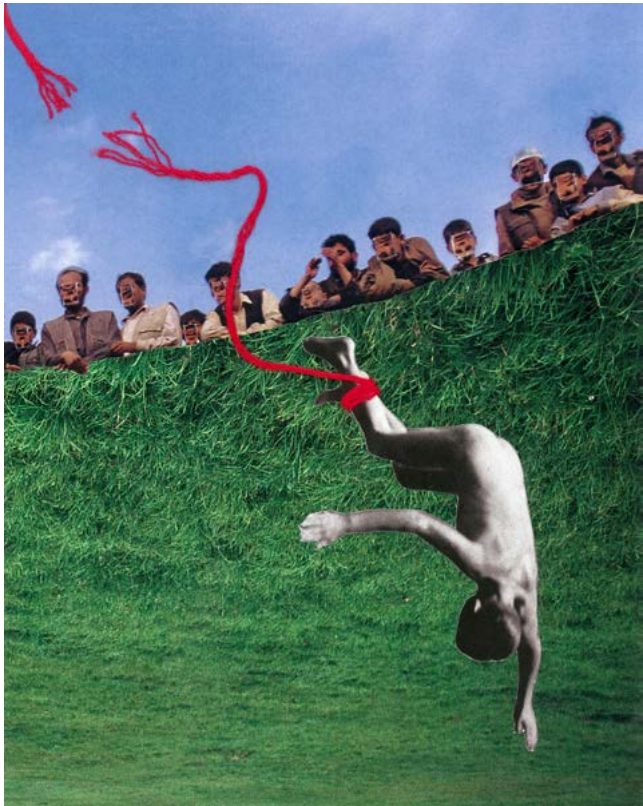
방황하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내가 채워졌고, 무수히 많은 색이 섞여 나라는
사람이 되었다. 비로소 나는 내가 한 가지 색깔의
물감이 아니라 팔레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아직도 너무나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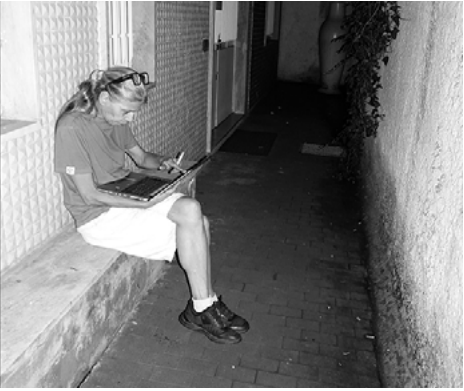
5살 때, 엄마가 사준 퍼즐 박스에서 퍼즐은 내팽개치고 박스 뚜껑에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다. 아마 그쯤부터 그림을 그렸던 것 같다. 애니고에선 동화책 제작 과제에서 클립과 자석으로 책을 만들었고, C를 받았다.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예대 과제에선 교수님께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어느 것이든 정답은 없다. 매번 5살이 되어 그림을 그리는 것, 나와의 중요한 약속이다.



불확실한 선택일 거라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도태돼 버린 매듭을 끊어버린 나는 아래로
발사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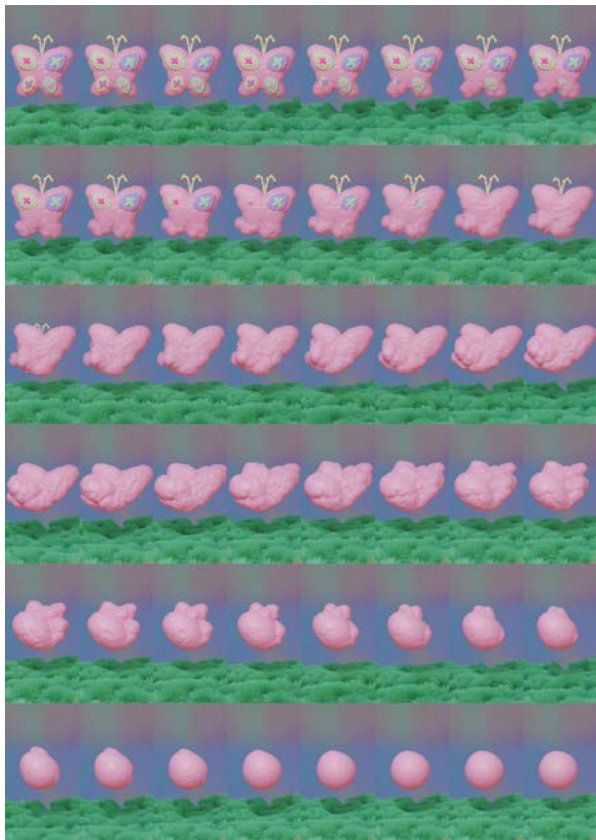


틀에 박혀있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된 나를
부럽게 바라보는 그들은 연못 속에 갇혀있었다.



가장 처음 갖게 되는 주름은 손에 있다. 수천 개의 주름선과 작은 손가락 끝마디에 새겨진 유선형 지문은 어쩌면 우리가 갖게 될 흔적을 미리 안고 태어나는 게 아닐까. 알뜰해 보이던 순간이, 무심코 지나친 순간이 다시 보니 아슬리지게 반짝이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주름선은 두텁고 곧아진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다. 그 속에서 발견하는 이제 와서야 보이는 것들. 지금은 사라져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보이게 될 것들. 또 그렇게 잊힐 것들. 모든 순간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다 보면 단단한 주름선이 만들어진다.

사진은 올여름, 유럽 여행 중 만난 이들의 손.



생동적인 뜻을 담은 이름, “Vivian’s Dazzling Wings”는 빛나는 날개와는 대조적으로, 나비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는 나 또는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나타내며, 과정의 순환과 근본적인 본질에 주목한다.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으로 치유하듯 작업이
재미있지 않아서, 하고 싶지 않아서 힘들고
갑갑했던 마음을 사랑의 힘으로, 작업이 주는
에너지로 치유한 요즘의 나.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이 일에 진심임을
깨닫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마음속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후련함에 눈물이 줄줄.



예측불허함 속에서 파손과 회복, 약화와 강화의 상태를 무한히 반복하는 신체를 감각하는 일.

신체는 비밀스러운 언어로 각인된 기호가 된다.
신체는 본질들에 감겨 있다가 풀려나는 기호들을
반사하면서 일종의 언어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보고 사랑하고 느끼고 창작하려는 자는 이
비밀스러운 언어의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

이찬웅, 『들뢰즈, 괴물의 사유』 (서울:이학사, 2020) 89-90p



나 자신은 내 안의 감정과 생각의 대표인 존재로,
내면은 투명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갖고있다. 잔은 이러한
내면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매체로 나를 담고 나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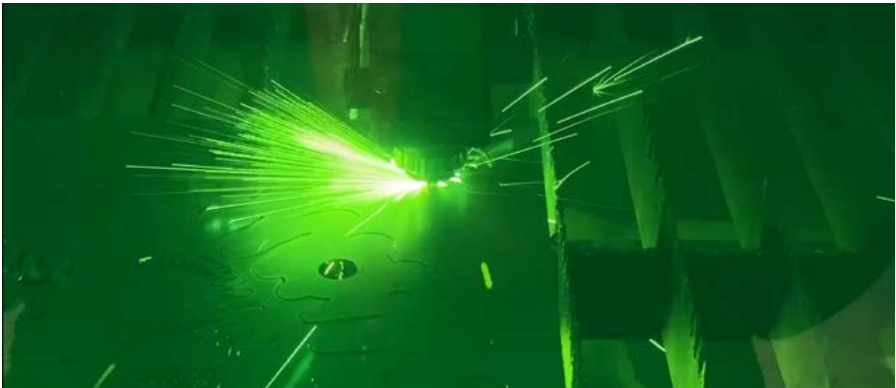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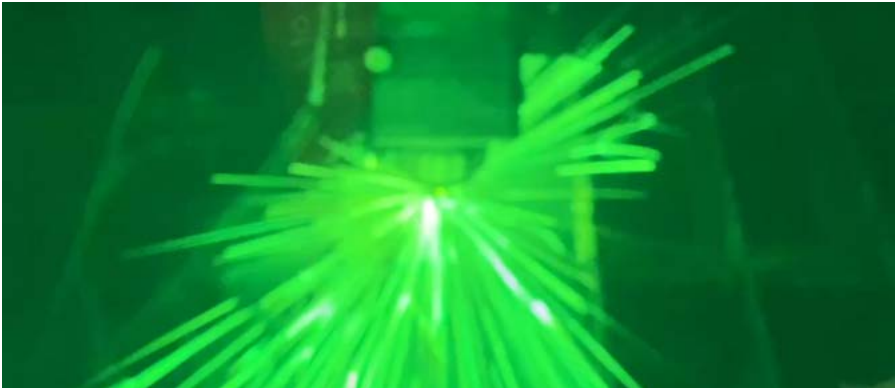
30년을 살고 보니 더 죽기 무서워진 해강이에게,
앞으로도 돌아볼 쪽지를 주고 싶다

아주 조그만 것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사소히 나를 만들어온 것들을
가끔이 아니라 영원히 떠올리자고

나도 언젠고 죽겠지만,
언제든 그들을 떠올리며
가끔보단 언제나 돌이킨다면
돌아보는 나도, 돌아봐지는 것들도
영원할 것 같으니까

영원한 것이 필요하다던 어떤 우상들과
영원한 것을 다시 또 원할 나에게,
홀어지는 게 슬픈 속눈썹들을 만나며
나에게서 누군가로, 뺏음코 없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음악저작물 사용 승인필:
[READY FOR LOVE], BLACKPINK,
<READY FOR LOVE (2022)>,
작사 24, VVN, TEDDY, KUSH,
JOHNSON REBECCA ROSE.



나선형 줄기: 리듬과 주기성.

우리는 인간 자신을 성장하는 줄기로 표현할 수 있다. 살아 있는 식물의 움직임은 물질과 힘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설명된다. 이때 이 움직임은 자연의 규칙과 리듬을 가진다. 리듬은 심장박동에서 연동, 호흡과 세포분열로 이어지는 생명의 발현에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는 생명의 순환적 리듬으로 확장된다. 리듬 주기성은 모든 생명에게 나타나며, 식물세계에서는 생명력 있는 줄기의 원형운동으로 연속적으로 반복된다. 이 리듬은 생명을 엮는 조화이자 불가항력의 명상적 개념이 될 수 있다.



나다음이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를 보고나서.

HERA

SEOUL